國語의 '통사적인' 空範疇에 대하여*

任 洪 彬

1. 문제의 제기

본고는 국어에 나타나는 '통사적인' 공범주(Empty Category)에 대하여 필자 나름대로 그 존재성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관한 몇 가지 가설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사적인 공범주'라는 특이한 이름으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곧 밝혀질 것이지만, 본 논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원리를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1) 주어 전제 조건
국어에 있어 모든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한다.

이 원리는 Chomsky (1981)와 Chomsky (1982)의 '확대 투영 원리'와도 관련된다.[1] (1)은 다소 지나치게 강력한 것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국어에 있어

* 이 논문의 심사를 맡았던 익명의 심사 위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 논평은 이 논문의 기본 가정에서부터 문장 자료의 적격성, 논리적인 약점, 문장 표현 등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것이었다. 이에 의하여 본고는 많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다만, 그 제안을 모두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인 견해의 차이는 그대로 남는다.

[1] '확대 투영 원리(Extended Projection Principle)'의 내용은 Chomsky (1981)의 여러 곳에서 암시되고 있으나, 이 명칭 자체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Chomsky (1982: 82)에서이다. 이는 '투영 원리'와 '심층격-기준'을 종합한 것으로 '모든 문장은 주어를 가진다'와 같은 내용을 가진다. 최근 이 문제를 정밀화한 것은 Rothstein (1985)이다. 필자가 이 논문을 대한 것은 초교의 교정 도중이다. 따라서, 이를 자세히 다룰 수 없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Chomsky (1982: 82)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The presence of an EC is determined by the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익명의 심사 위원과 Rothstein (1985)은 '확대 투영 원리'가 영어의 S-구조에만 특이한 가설로 보고 있다. passive predicate, raising predicate, unaccusative predicate, weather predicate의 경우 주어는 그야말로 '영(null)'이므로, 영어의 D-구조에는 '확대 투영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 필자가 과문이어서 이 분야에는 어둡기 때문에 소박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투영 원리'라는 술어 자체가 어휘의 하위 범주화 자질이 문법의 모든 통사적인 층위에 적용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어'의 존재를 부가한 '확대 투영 원리'가 S-구조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술어의 논리상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둘째, 영어의 D-구조에서 부정사 구성의 주어의 자리에 PRO가 설정되는 것은 이 '확대 투영 원리'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심층

모든 서술어가 그 주어를 가진다는 것은 아직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Chomsky (1985: 133)에 있어서 (1)은 (물론 거기에 '국어'라는 한정은 없다) 보편 문법(UG)의 '인허 선택(認許選擇 ; licensing option)의 하나가 되는 사항이다. 그 내용은 Chomsky (1981: 27~28)에 암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영어나 불어에서는 S→NP-INFL-VP를 선택하게 되나, 세미틱 언어에 있어서는 S→(NP)-INFL-VP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자에 있어서는 주어가 필수적이나 후자에 있어서는 주어가 필수적이 아님을 뜻한다. Chomsky (1981: 131)에서는 비형상적 언어인 일본어에 대하여 (1)의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空主語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1)은 국어에 대해서도 너무 강력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국어에 변형 생성 문법이 도입된 이후,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국어에 있어 주어의 존재가 의심의 대상이 된 일은 없다.[2] 국어 문법에서 다루어진 대부분의 현상에 있어서도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있다든가, 모든 서술어는 주어를 가진다든가 하는 가정에 입각함으로써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은 (1)이 국어의 대부분의 문장이나 절(節)의 구조에 대해서 그만큼 유효한 원리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된다. 본고의 목적의 하나가 국어에서는 이제까지 주어의 상정이 어려웠거나 다만 부분적으로만 주어가 상정되었던 몇 가지 특이한 구성에 주어를 상정하려는 것이므로, 만약 본고에서 (1)을 상정하여 주어와 관련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 낼 수 있다고 한다면, (1)은 국어에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적인 전제 아래 우리는 (1)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 동안 국어 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무주어문' 또는 '일지문

격-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층격-기준은 의미론적인 것이므로, 모든 경우 일일히 그에 의거하여 주어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세째, '영-주어'도 범주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명사구'가 그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령 '인상 술어'에 대한 명사구-이동은 '구조 보존 제약'을 어기게 된다. 본고에서 '영-주어'는 내용이 없는 공범주로 보았다. 영어에서와 달리 국어에서도 (1)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는 경험적인 것이다. 필자가 '확대 투영 원리'보다는 (1)을 선택한 것은 심사 위원의 논평도 논평이지만, 본고에는 (1)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이에 대해서는 극히 암시적으로 졸고 (1974나)에서 다루어진 바 있으며, 이승욱 (1969), 박양규 (1980)에서 '잘 먹겠읍니다, 고생 끝에 낙을 본다, 열에서 둘을 빼면 여덟이다'나 '것 같다'와 같은 예가 검토된 바 있다. 박양규 (1980)에서 상정된 것은 '최대 구조'라는 개념이며, 이승욱 (1969)에서의 논의를 반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듯하다' 구성에 상황과 관련된 공범주를 상정한 것은 안명철 (1983)이다. 남기심·고영근 (1985)에서는 이승욱 (1969), 박양규 (1980)적인 '고생 끝에 낙이다, 둘에 둘을 보태면 넷이다'와 같은 예 외에 '도둑이야!'와 같은 예를 들고 굳이 주어를 따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ingliederige Sätze)' 등과 같은 이름으로 불러 왔다.

(2) 가. 비다!
나. 불이야!
다. 도둑이야!

위의 (1)과 (2)에서 생겨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3) 가. 위의 (2)에 제시된 문장은 정말로 주어가 없는 문장인가?
나. 위의 (2)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국어의 다른 예는 없는가?
다. 위의 (2)와 같은 예에 만약 주어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종류의 것이 될 것인가?
라. 위의 (2)와 같은 문장의 구성을 설명 또는 해결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 서론에서는 (3가)와 관련되는 주변적인 문제만을 검토하기로 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의 예들을 그대로 주어가 없는 문장으로 인정할 수도 있는 견해로는 이승욱 (1969=1975)과 손호민 (1980)을 들 수 있다. 이승욱 (1969=1975)에 의하면, 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는 '주어+서술어'와 같은 '이지적(二枝的)'인 것이 아니라, 서술어 중심의 '단지적(單枝的)'인 구조이다. 따라서, 주어를 단지 "서술어에 관계하는 부속적인 구성소"(이승욱 1969=1975: 251)로 본다. 또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국어를 '주제 부각형(Topic prominent)' 언어로 상정하고 주어를 단지 기생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손호민 (1980)이다. 그래서, 만약 국어에서 주어의 존재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면, (2)와 같은 예들에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이상한 일이라거나 의아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순수히 형식 논리에만 의존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국어에서 주어의 존재성 자체가 미흡한 것이라고 하면, (2)와 같은 예에서 주어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혀 기이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2)는 국어의 가령 다음과 같은 예의 주어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느껴진다.

(4) 가. 화자 가: 철수가 어디에 갔느냐?
나. 화자 나: 학교에 갔다.
다. 화자 나: 철수가/철수는/그가/그는 학교에 갔다.

(4가)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4나)와 같이도 대답할 수 있고, (4다)와 같이도 대답할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화자 나'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4나)에서

그 주어가 무엇인지를 추측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를 (2)의 예들과 비교하면, 사정은 달라진다. (2)에서는 선행 담화((4)에서와 같으면 (4가))가 없이도 그 의미의 전달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반면, 그 주어가 무엇인지를 쉽사리 추측해 낼 수 없다. 만약, 국어에 있어서 그 주어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부정될 수 있다거나 주어의 일반적인 존재성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면, 적어도 (4나)와 (2) 사이에 성립하는 이러한 차이는 결코 아무런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4나)와 (2)가 가지는 앞서와 같은 차이는 역설적으로 국어에 있어서 주어의 존재성이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기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실도 국어에 주어의 존재가 상정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4]

(5) 가. 재구된 구조 외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는 주제나 주어이다.[5]
나. 복수 표시 '들'과 연관 해석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주어이다.
다. 국어의 피동을 어떠한 층위에서든 능동과 관련시키는 경우, 주어가 필수적인 관련항이 된다.
라. 존대의 선어말 형태 '-시-'와 가장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주제나 주어이다.[6]

(5가, 라)는 주제와 주어에 동시적으로 관련되는 것이며(여기서는 다소 과장한 것이나, (5라)에는 다른 예외도 있다), (5나, 다)는 주어와만 거의 배타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5나, 다)만으로도 주어의 존재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5가, 라)는 방증적인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국어에 있어서 어떠한 문장이든 주어를 가져야 한다고 상정하기로 한다. 이는 국어에도 (1)이 성립함을 말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명백히 하기로 한다. 하나는 우

---

[3] 우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주제나 주어는 그 설명하는 원리가 아주 酷似해진다. 특히, 상황 범주로부터 유도되는 공범주 주제나 공범주 주어의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나, 국어의 현상 일반에 의하여 주어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판단은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4] 이에 대해서는 졸고 (1985)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5] 여기서 '재구된 구조'란 필자의 재귀사 해석 방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1984년 12월 서울대 어학연구소 주최의 어학연구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를 본격화해 보려고 한다.

[6] (5라)는 결코 정확한 것이 아니다. {-시-}는 지배적인 경향에 있어 주어와 관련됨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가 경험주 존대의 視點과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다루어 보기로 한다.

리가 제목에 전제로 한 '통사적인 공범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는 편의상의 구분으로, (4나)와 같은 예의 공범주와 (2)와 같은 예에 상정되는 공범주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논의에 (4나)의 주어와 같은 예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나)와 (2)의 구별은 우선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4나)와 (2)의 공범주 주어는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상일지도 모른다.[7] 여기서, (4나)는 반드시 선행 발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 예의 '화자 나'는 같은 문맥에서 (4나)로 대답하든 (4다)로 대답하든 자유롭다는 의미에서 자의성을 가지므로 이 특성을 고려하여 (4나)와 같은 예의 공범주를 '문체적인 공범주'라 부르기로 한다. (2)의 경우는 선행 발화가 전제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의성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또한 그 주어는 (1)의 '주어 전제 조건'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유형의 공범주를 '통사적인 공범주'라 부르기로 한다. (4나)의 공범주 주어를 문맥적 공범주나 의도적인 공범주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여기선, (2)의 주어도 '상황 문맥'이라는 것과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맥이라는 말을 한정하여 쓰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또한, (4나)의 공범주를 단순히 문체적인 공범주라고 하는 데에도 문제는 있다. (4나)와 (4다)로 그 화자가 의도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4다)의 '철수가'와 '철수는'의 의미도 다르며, 그보다는 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4나)와 (4다)의 '철수가'와도 표현 가치의 측면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그것은 엄밀히 문체적인 차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넓은 의미에서 문체적인 차이라고 보기로 한다. 엄밀히는 (4나)를 (4다)적인 구조에서 유도할 수 없다. 이는 '삭제에 대한 회복 가능성 조건'에 의한다.

다른 하나는 국어에 있어 주제가 차지하고 있는 자격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별다른 증명 없이 받아들이기로 한다.

(6) 근문(根文) 주제조건[8]

적어도 국어의 모든 근문(根文)은 주제를 가진다.

---

[7] 이에 대해서는 본고의 결론에서 매우 암시적으로 다시 다루었다. 양동휘 (1979, 1982)에서의 논의가 참조된다.

[8] (6)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주제에 대한 논의는, 애초 존재문이나 'It rains.'와 같은 문장을 무주제문(Topicless sentence)과 같은 이름으로 불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제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론적인 특징을 '언급대상성(aboutness)'이라고 할 때, 이들 문장이 아무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란 해석은 있을 수 없다. 졸고 (1972), Huang (1984)에서와 같은 Empty Topic의 설정을 일반화함으로써 어떤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제에 대해서는 졸고 (1972)의 기본적인 가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이는 국어가 '주어+서술어'의 기본 구조를 가진 언어가 아니라 Li & Thompson (1976)적인 의미에 있어 '주제 부각형' 언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국어에서 주어의 존재도 부정될 수 없다고 할 때, 국어는 '주제-주어 동시 부각형' 언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주제가 문제되는 층위와 주어가 문제되는 층위가 구별되는 것이라면, 이들을 같은 자격으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 無主語文의 해석에 대하여

국어에 있어 주어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논리와 (2)와 같은 예의 문장에도 과연 주어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막연히 (2)의 예에도 공범주 주어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여 그것이 우리가 편의상 상정한 통사적인 공범주의 하나이며, 문체적인 공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시하기로 한다.

첫째, (2)의 예들의 구성이 다른 계사 구성과 마찬가지로 '명사구+계사'의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다'가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그 어간 '이-'가 흔히 탈락되는 모습도 일반적인 계사 구성의 논리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7) 가. 도둑+이아/어→도둑이야!
나. 불+이아/어→불이야!
다. 비+이다→비다.

(7가, 나)는 자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 계사가 연결됨으로써 계사 어간 '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이며, (7다)는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에서 계사 어간 '이-'가 탈락되고 그 어미 형태만이 나타남을 보인다. 그것이 계사 구성이 아님을 의심해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만약 '명사구+계사'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주어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 (7)의 예에 대하여 주어를 상정하는 것은 (1)의 조건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2)에서 우리는 모든 예에 느낌표를 하였다. 이는 그들 문장이 쓰이는 일반적인 용법이 고함이거나 감탄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나 (7)은 결코 감탄의 용법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7다)의 '비다'는 일반적으로는 고함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이다. 입술 속의 조그마한 소리로 '비다'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2)나 (7)을 감탄사라고는 볼 수 없다. (2)나 (7)이 감탄사가 될 수 없는 것은 계사 앞에 오는 명사구의 수가 폐쇄적인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다음과 같은 예는 이러한 관련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8) 가. 야, 책이다/책상이다/일감이다/신부다/꽃이다/과자다.
나. 앗, 도둑놈이다/날강도다/형사다/귀신이다.

그리고, 가장 소박한 의미에서 감탄사가 주어 없는 문장의 전형이라고 할 때, 또 감탄사의 목록은 그것이 아무리 다양하다고 하더라도 폐쇄적인 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할 때, (2)와 같은 예가 폐쇄적인 집합이 아니라, 개방적인 집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 온전한 의미에 있어 (2)가 주어 없는 문장은 아님을 말해 준다.

세째, 앞에서 우리는 (2)나 (7)이 '명사구+계사'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 때, (2)나 (7)에서 계사 앞에 오는 명사는 명사구가 아니라, 단순한 명사로 보기 쉽다. 다른 관형어를 이들 명사 앞에 놓아 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2)나 (7)이 발화되는 사정의 급박함과 관련되는 것이지 구성 자체의 문법적인 특성과는 다소 거리를 가진다.

(9) 가. ?큰 불이야!
나. ?흉악한 강도야!
(10) 가. 큰 지진이다!
다. 큰 사고다!
다. ?인정 사정 없는 살인마다!

(9가, 나)는 다소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10)는 그만한 정도로는 이상하지 않다. 다만, (10)의 예들도 주어 없는 문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에 의한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일반화는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급박하면 할수록 관형어의 쓰임이 기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관형어의 첨가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네째, (2)나 (7)의 예들은 바로 그와 같은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청자 대우법과 관련한 다른 형식들과 함께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 가. 비입니다/비오/비네!
나. 불입니다/불이오/불이네!

만약 다시 또 감탄사적인 예가 주어 없는 문장의 전형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한 감탄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그 어미 형식이 다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형식을 띠는 것이라는 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11)과 같이 (2)나 (7)이 고정된 형식으로서가 아니라 몇 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은 (2)나 (7)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 주어 없는 문장은 아님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위의 논의와도 관련되는 것이나, (2)나 (7)에는 평서문의 형태로

뿐만 아니라 의문이나 감탄형 종결 어미와도 함께 쓰일 수 있으며, 인용 보문자 '고'가 다시 뒤에 쓰일 수도 있다. 문미 외적인 문미의 연결도 가능하다.

(12) 가. 비다!—비냐?/비입니까?/비구나!/비로구나!
나. 불이야!—불이냐?/불입니까?/불이구나!/불이로구나!
다. 불이야!—불이라고?
라. 도둑이야!—도둑이라니!

(12가, 나)는 의문과 감탄의 예이다. (12다)는 전형적인 문종결 형식 뒤에 '고'가 연결된 것으로, 계사문이 뒤에 인용 보문자 '고'를 가질 때, 그 어미 형식이 '다'가 아니라 '라'로 변화하는 것과 일치한다. (12라)의 '-니'는 문미 외적인 문미로, 그러한 문종결의 양상과 다를 것이 없다.

여섯째, (2)나 (7)에는 어떤 종류의 주어가 상정될 수도 있고, 상황 관련 요소가 주제와 같은 것으로 쓰일 수도 있다.

(13) 가. 내일은 날씨가 비다.
나. 여기는 도둑이다.
다. 여기가 불이야![9]

(13가)의 '내일은'은 (13나, 다)의 '여기가/여기는'과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한정이나 장소적인 한정과 관련되는 주제로 이해된다. (13다)의 '여기가'가 비록 주격 조사와 유사한 '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곧 주어라고 해석될 수는 없다. 주어가 없다는 문장에 바로 주어가 상정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속한다. 더구나, (13가)의 '날씨가'는 '비다!'와 같은 문장의 주어로 여겨질 수 있는 성분이다. 다만, (13가)에는 '날씨가'와 같은 주어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으나, (7다)에는 직접 쓰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2)나 (7)의 문장이 문자 그대로 주어를 가지지 않은 문장이 아니라, 주어를 가지고는 있으나 외현적(外現的 ; overt)인 성분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을 뿐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3가)에 대한 답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제 (2)에 상정되는 주어를 아래와 같이 공범주 *e*로 나타내기로 한다.

(14) 가. [NP *e*] 비다!

---

[9] (13나)의 '여기가'는 절대로 주어가 될 수 없다. '여기'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주어인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졸고 (1972)에서의 접근에 따라 (13다)의 '여기가'는 주제인 것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나. [NP e] 불이야!
다. [NP e] 도둑이야!

또. 이들은 명백히 근문이므로, (6)의 '근문 주제 조건'에 의하여 주제를 상정하면, 그 구조는 아래와 같이 된다.

(15) 가. [TOP e] [NP e] 비다!
나. [TOP e] [NP e] 불이야!
다. [TOP e] [NP e] 도둑이야!

종래 주어도 가지지 못하였다고 하는 문장에 대하여 우리는 두 개의 공범주를 설정하였다. (15)에서 공범주 주제는 잉여적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1)의 '주어 전제 조건'과 (6)의 '근문 주제 조건'을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 논리적인 필연이라고 할 수 있다. (15)의 예들에 상정된 공범주 주제와 공범주 주어의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공범주 주제와 공범주 주어가 동지표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공범주 주제와 공범주 주어가 동지표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기로 한다. (15가)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6) 가. [TOP e_1] [NP e_1] 비다!
나. [TOP e_1] [NP e_2] 비다.
다. 내일은 날씨가 비다.
라. 내일이 비다.
마. 지금이 비다.
바. ?지금이 날씨가 비다!

(16가)는 공범주 주제와 공범주 주어가 동지표되는 경우이며, (16나)는 두 범주가 다른 내용을 가지는 경우이다. 만약, (16다)에서 '내일은'이 주제이고, '날씨가'가 주어라고 하고, (15가)에도 이와 동일한 의미 관련이 성립한다고 하면, (16가)의 지표보다는 (16나)의 지표가 선택되어야 한다. 두 공범주가 동일하다는 어떠한 확인에도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15가)는 (16나)적인 지표를 가지면서 동시에 (16가)적인 지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란 가정에 입각하기로 한다. 우선은 (16나)의 두 공범주가 확실히 다른 것이라는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16다)는 주제도 주어도 외현적인 성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제와 주어를 구분해 볼 수 있으나, 주제도 주어도 공범주로 나타나는 것이면서, 어떠한 범주도 문체적인 공범주가 아닌 경우, 이 두 범주의 내용을 구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며,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둘째, (15가)를 그 상황 의

미에 가장 가깝게 換言해 보면, (16바)와 같은 내용이 될 것이다.[10] 그러나, (16바)는 필자의 직관으로는 그 성립이 의심스러우며, 적어도 (16다)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 (16가, 나)의 공범주 주제를 '상황 공범주'라는 이름으로 불러, 그 특이성을 다음과 같이 상정하기로 한다.

(17) '상황 공범주' 주제와 공범주 주어 조건
주제가 상황 공범주로 상정되고, 주어도 공범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주어가 의도적인 공범주가 아니라면, 공범주 주어의 내용은 공범주 주제의 내용과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범주 주어의 내용이 공범주 주어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내용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기로 한다.[11]

(18) 가. $X_{\alpha} \rightarrow Y_{\alpha'}$
나. [TOP e_{α}] [NP $e_{\alpha'}$] 비다!

(18가)는 어떠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가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그 내용이 유도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기법을 (16가, 나), 즉 (15가)에 도입하는 경우, 그것은 (18나)와 같이 된다. (18가)는 그 어휘적인 재료가 다를 수도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제나 주어가 공범주가 아닌 경우, 즉 (16다)와 같은 경우를 배제하지 않게 된다.

이는 (16가)나 (16나)와 같은 표기법도 아니면서 둘을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적인 재료가 비록 다른 것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적인 내용은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에는 전형적인 심리 동사 구문이라고 하는 '나는 음악이 좋다'와 같은 예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다음 장에서 검토하기로 한

[10] (15가)와 (16바)가 평행적인 구조라고 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그 내용까지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15가)의 공주제는 상황 자체이며, (16바)의 '지금이'는 상황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어휘적인 어떤 재료이다. 보다 접근 가능한 것은 '지금 상황은'과 같은 주제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한다면, 모든 부사 성분도 공범주로 나타나야 한다는 논리적인 난점(심사 위원 지적)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필자가 상정하는 구조에 있어 주제는 부사적인 성분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다.

[11] (18)과 같은 지표법은 필자 자신의 고안에 의한다. 따라서, 나중에 어떤 이론적인 결함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인데, 국어의 특징이 '화용-중심적인 언어'라는 것이 우리의 전제이기 때문에 다소 투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8)적인 지표법에 의하여 문제의 해결에 임하려고 한다. 이는 공범주 속격 성분을 설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우선, (15가)의 공범주 주제가 '발화 상황 속에 직접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나타내는 것임은 직관적으로도 자명하다. (15)와 같은 예가 '직접성, 현장성, 상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임은 (15)가 시제 형태와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 가. ?*비였다/비겠다/비더라.
나. ?내일은 비겠다.
다. ?어제는 비더라.
라. ?어제는 도둑이었다.

(19)와 같은 형식은 거의 쓰이지 않거나, 이상한 예이다. 발화 장면에서 다소 떨어진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많은 접제가 주어져야 성립될 수 있다. '그가 예상하는 것은 무엇이냐?'와 같은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나타나는 (19가)와 같은 형식은 '문체적인 공범주'를 가지는 것이므로 지금 우리의 논의와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다.

둘째, (15)와 같은 문장은 주로 근문에만 쓰이는 경향이 있고 내포문에는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20) 가. ?*내일은 비이므로, 집에 있거라.
나. ?*지금 불이어서, 우리는 공포에 떨었다.
다. ?*비이면, 나에게 곧장 전화를 하거라.
라. ?*도둑이더라도, 무조건 권총을 쏘지 말아라.
마. 내일은 비이기 쉽다/내일은 비이기를!
바. 내일은 비였으면 한다/내일은 비였으면!

(20마, 바)는 성립할 수도 있다. 따라서, (15)가 반드시 근문에만 쓰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향에 있어 근문에 주로 쓰인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이는 다른 어떠한 의미보다도 예의 공범주 주제가 상황 속의 어떤 것, 혹은 상황 자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12]

(21) '상황 공범주 주제' 근문 조건

[12] (21)은 (49)에 의하여 일반화되는 것이다. 우리 논의의 결합의 하나가 될 것이나, (21)이나 (49)가 결코 절대적인 조건은 되지 못한다. 다만, 경향을 말해 주는 것일 뿐인데, 의미론적으로는 상황 의존성을 강하게 가지는 경우 근문에만 쓰이는 경향을 가지며, 상황 의존성을 약하게 가지는 경우 내포문에도 쓰일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 공범주 주제는 주로 근문에 나타난다.

세째, (15)와 같은 예에서 다시 또 주목되는 것은 (15)가 다른 계사문과는 달리 다소 사건적인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환언(paraphrase) 관계가 가능하다.

(22) 가. 불이야!→불이 났다!
나. 도둑이야!→도둑이 들어왔다!
다. 비다!→비가 온다!

왼쪽의 표현은 오른쪽의 표현과 의미론적으로 동일하다고 해도 좋을 만큼 동질적이다. 계사문에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가장 전형적인 계사문의 예를 보기로 한다.

(23) 가. 철수가 학생이다.
나. 철수가 저 학생이다.
다. 우리는 통일이 소원이다.

(23가)는 '성격 구명'의 의미를 가지며 (23나)는 '정체 구명'의 의미를 가진다. (23다)에서 '통일'과 '소원'과의 관계도 '성격 구명'이라고 할 수 있다. (23)은 '관계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22)가 (23)과 같은 관계 표현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15)나 (22) 역시 본질적으로는 '계사문'이므로, 그 논리와 양립할 수 있는 해결법이 중요성을 가진다. 문제는 (23)에서는 그 주어가 관심의 중심 대상인 데 대하여, (22) 즉 (15)에서는 서술어가 관심의 중심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다. 계사문에서 주어가 관심의 중심 대상일 때에는 관계의 의미론적인 양상이 표현되고, 주어보다는 서술어가 관심의 중심 대상이 될 때에는 관계의 의미보다는 사건적인 의미를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계사문이 본래 '등치(等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A가 B이다'와 같은 계사문은 'A와 B의 동일성'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A의 중요성이 약화될수록 B가 바로 A를 대신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등치 관계의 논리이다. 종래 무주어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배타적으로 계사문에만 나타나는 것은 계사문이 가지는 이와 같은 의미론적인 특이성에 의한다.[13]

---

[13] 여기서 '거의'라는 말은 중요성을 가진다. 상황 공범주가 계사문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다!'와 같은 예의 주어는 적어도 '비'를 포함한 상황이거나 '비'와 관련되는 상황이거나 '비' 자체이거나 어느 것이다. 그것은 앞서 우리가 (18나)에서 공범주 주제를 상황과 관련된 것이라 하고, 공범주 주어를 그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 것과 일치한다. 이는 (18가)와 같은 표시를 지지한다. (17)에서의 규정과 같이 주어가 상황 공범주인 경우, 그리고 다시 그 주어도 공범주로 나타나는 경우, 만약 그 공범주 주어가 '문체적인 공범주'가 아니라면, 두 범주의 내용은 의미·화용론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계사문의 등치 관계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24) 상황 공범주 문장의 성립 조건
가. 상황 공범주 문장은 계사문에 편중되어 나타난다.[14]
나. 계사문에 상황 공범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계사문의 주어와 서술어에서 주어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서술어가 주어의 내용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특이성에 의한다.

(24나)를 우리는 '주어 흡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이는 서술어의 존재가 주어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하는 조건이다. 다만, (15)와 같은 경우는 의미론적으로만 그러한 특징을 가질 뿐이다.[15]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5)에서 통사적으로 주어가 완전히 서술어에 잡아 먹힌 것은 아니다. '주어 흡수' 현상은 그 성격 자체가 의미론적인 것이므로, 정도의 차이를 가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25) 가. 영희야, 네가 어찌 된 일이냐?
나. 희철아, 너는 얼마나 기다렸느냐?
(26) 가. 조국이여, 영원하라.

---

[14] 상황 공범주는 '것이다, 것같다, 듯하다, 듯싶다, 싶다, 보다, 쉽다' 등의 서술어에도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5] 심사위원의 지적은 만약 국어에서 '불이야!'와 같은 예가 주어-서술어를 가지는 문장이라고 한다면, 영어의 'Fire!'도 공주어를 가지는 문장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Fire!'는 Quirk et al. (1985: 851)에 'Nonsentence'로 분류되어 있다. 특이한 언표내적인 효력을 가지는 이와 같은 명사나 명사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는 아직 의문이다. 그러나, 지적된 'It's fire!'란 문장은 이미 주어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통사론의 대상이 된다. 국어의 경우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불!'이 가능하고, '불이야!'나 '불이다!'도 가능하다. 우리가 상정한 '문체적인 공범주'를 가지지 않는 '불!'이란 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 것인가는 역시 의문이나, '불이야, 불이다, 불입니다, 불입니까' 등은 문장의 논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나. 주님이시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이들 예의 '아/야/이여/이시여'는 흔히 호격 조사라고 하는 것이다.[16] 그러나, 이들이 호격 조사로서의 정적한 형식이 아니라는 것은 '이시여'의 '-시-'와 같은 형식에서 드러난다. 만약, '이여/이시여'에 용언의 어간과 같은 어떤 것이 없다고 할 때, '-시-'의 개입은 불가해한 것이 된다. '이여/이시여'의 '이-'를 계사 어간이라고 하면, (26나)의 '주님이시여'는 서술어이고, 이에는 (1)에 따라 공범주 주어가 상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가령 아래와 같은 형식을 띠게 된다.

(27) [NP *e*] 주님이시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그러나, 이 때의 주어는 '거의' 완전히 서술어에 흡수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여겨진다. 직관적으로도 부르는 대상이 바로 그 주어라고 알 수 있는 것이며, 문법적으로는 '-시-'외의 다른 어떠한 선어말 형태도 쓰일 수 없다는 것이 그 흡수의 정도를 말해 준다. 다음의 예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28) *조국이었어, 영원하라./*조국이겠어, 영원하라.

다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29) 가. 너라도 그런 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나. 형은 무엇이라도 좋다고 한다.
(30) 가. 누군들 앞날을 점칠 수 있겠느냐?
나. 그가 누군들 좋아하겠느냐?
(31) 가. 누구든 이리로 오너라.
나. 철수는 어떤 사람이든 따르려고 한다.
(32) 가. 뉘라서 겨울더러 추웁다더냐?
나.*철수는 뉘라서 데려 오겠느냐?
(33) 가. 너나 여기에 있으려무나.
나. 영희는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는다.
(34) 가. 사람이거든 대답을 해라.
나.*그는 사람이거든 때린다.
(35) 가. 그 분이시라도 그런 일은 하시지 못할 것이다.
나.*철수는 그 분이시라도 만나려고 한다.[17]

[16] 계사의 동일한 형태가 어떤 때에 '도둑이야!'와 같은 무주어문적인 예가 되고, 어떤 경우에 '바람아!'와 같은 호격 조사적인 것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행-억양에 의한 설명이 시도될 수 있다. 졸고 (1984) 참조.

[17] (35가)와 비교하여 (35나)와 같은 현상은 국어에 있어서의 '주어-목적어 비대칭성'을 보이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기타, Saito (1982)에서 지적되고 있는 '주어

다. ?철수는 어느 분이시라도 만나려고 한다.
라. 철수는 그 분이 어느 분이시라도 만나려고 한다.
(36) 가. 어느 분이시든 이리로 오십시오.
나.*철수는 어느 분이시든 따르려고 한다.
(37) 가. 당신이시나 여기에 계시구려!
나.*철수는 당신이시나 따른다.

일부 학자들이 특수 조사의 일종으로 다루는 예들 가운데 '이'로 시작되는 이형태를 가지는 예들을 문제삼았다.[18] 조음소도 아니면서 '이'로 시작되는 이형태를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결코 범상한 일이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심각한 문제가 되어 본 일이 없는 예이다. 이들의 어미 형식이 전형적인 용언에 나타나는 어미 형식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었을 뿐, 정확히 지적된 일도 드물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이)라도, (이)든, (이)라면, (이)라서, (이)나, (이)거든' 등은 계사 어간에 어미 형식이 연결된 형식이다. 이들이 '-시-'의 개입을 허용한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단순한 조사에 '-시-'가 연결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시-'외의 다른 선어말 형식은 연결될 수 없다. 서술어에 의한 주어의 흡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시-' 연결형이 바로 주어에 해당하는 위치에서만 쓰인다는 것이다. (32나)는 '-시-' 없이도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나, (35나)는 (35가)와는 구별된다. (35다)는 성립한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35다)가 '누구나'의 뜻은 가질 수 없다. (35다)는 (35라)의 의미로만 쓰일 수 있는데, (35라)에서 '-시-'는 정상적인 내포문에 쓰인 것이며, 주어 흡수문의 예에 쓰인 것이 아니다. (36나)나 (37나)의 예도 성립하지 않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나는 '-시-'가 들어감으로써 주어 흡수문의 성격을 다소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것이 주어의 자리에서 성립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그 문장이 본래 쓰이는 자리가 그곳이기 때문이다. 종속 접속문이 쓰이는 자리를 말한다. 이러한 예들에서도 우리는 '주어 흡수'의 작용에 대한 예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

+타동사' 관용어의 결여도 그러한 비대칭성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국어에서도 '동사구' 교점이 설정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임영제 (1984)이다.

[18] '이'로 시작되는 이형태를 가지는 보조 조사 가운데, '이랑'은 어미 형태로 쓰이는 일이 없다. '이라+ㅇ[ŋ]' 같은 형성일 것으로 추측된다. 'ㅇ[ŋ]'은 첨사일 것인데,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이랑'의 '이라'도 우리가 상정하는 논리에 포함된다. '사람이라 잘못이 있게 마련이다'와 같은 예는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8) 가. 저 못된 놈.
나. 저 못된 놈 같으니./?*저 못된 놈과 같으니.
다. 저 못된 놈 같으니라고.
라.*저 못된 놈 같으니라.
마. 저 못된 분 같으시니라고.
바.*저 못된 분 같았으니라고/*같겠으니라고.

이들은 '같으니'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만약 '같으니'라는 것이 계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24가)의 조건은 미약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예의 '같다'를 계사의 일종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김광해 (1983)과는 다소 구별된다). 우선 '같다'는 그 의미 자체에 의하여 '등치(等値)' 관계를 나타낸다. 그것은 계사문의 의미 특성과 같다. 둘째, (38나)의 '…과 같으니'란 형식이 성립하기 어렵다. 다소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나, 다른 쓰임에 대한 유추일 것으로 생각된다.

'같으니'가 조사와 같은 것이 아님은 (38마)와 같이 '-시-'의 연결을 허용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38바)와 같이 다른 선어말 형태와는 어울릴 수 없는데, 여기서도 주어 흡수의 예를 찾을 수 있다. (38)과 같은 예에서도 상황이 문제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외현적인 성분으로 마땅한 주어를 세워 보기 어렵다.

(25), (26), (29)~(31)이나 (30)의 예를 주어 흡수의 정도가 강한 예라고 한다면, 우리가 (15)를 통하여 검토한 예는 그 중간에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다시 다음과 같은 예는 '주어 흡수'가 매우 약한 특성을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39) 가. 참으로 좋은 날씨다./참으로 좋은 날씨였다.
나. 아, 그이였던가?
다. 아, 가을인가?/벌써 가을이었나?
(39′) 가. 날씨가 참으로 좋은 날씨다.
나. 아, 그것이 그이였던가?
다. 아, 계절이 가을인가?
(39″) 가. ?*무엇이 좋은 날씨냐?
나. ?*무엇이 그이였더냐?
다. ?*무엇이 가을이냐?

(39)의 예에는 '-었-'이 쓰이고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예들은 가지기 어려웠던 특징이다. 이는 (39)의 예들이 거의 정상적인 주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암시이다. (39′)는 예상될 수 있는 주어를 상정

해 본 것이다. 그렇다면, (39)의 주어는 '문체적인 공범주'인가? 그렇지 않다. (39′)에 상정된 주어는 그 외의 다른 외현적인 형식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것은 상당한 정도로 서술어가 주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는다. 아마도 강력한 정도로 주어를 흡수하고 있는 예는 아니지만, 미약한 정도로는 상황 공범주와 관련된 주어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온당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39′가)와 같은 예이다. 만약 주어가 '날씨(가)'라는 것이 옳다면, 서술어에 나타난 '날씨'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대상을 흡수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다른 특징의 하나는, (39″)와 같이 '무엇' 의문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무엇' 의문의 성립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떤 심증은 얻을 수 있게 한다. 전형적인 계사문의 경우는 담화의 영역 내에서 어떤 대상을 물을 경우, '무엇' 의문의 성립은 가능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상황 공범주'와 관련되는 주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통사 의미론적인 특성(특히 의미론적인)을 검토하였다. 만약, (1)에 전제한 바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모든 서술어가 주어를 가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특별히 어떤 종류의 문장에 대하여 주어가 없다고 판단해야 할 이유는 희박하다. 반대로 우리 논의가 타당하다면, (1)은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서술어에 대하여 통사적인 주어의 존재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의미론적인 성격에 있어 '서술어에 의한 주어의 흡수'와 같은 현상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강약의 정도 차이를 가진다.

3. 發話 狀況 範疇와 유도된 범주

앞에서 우리는 (17)이나 (18)을 통하여 어떤 주어진 범주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범주가 공범주로 나타날 수도 있는 현상의 일단을 검토하였다. 이와 동일한 원리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이른바 종래에 '심리 동사' 구문이라고 불러 온 일련의 예와, 注文 현장에서 쓰이는(41)과 같은 예이다. 먼저 예를 보이고, 이른바 '심리 동사' 구문이 가지는 특이성에 주목하기로 한다.

(40) 가. 나는 음악이 좋다.
　　나.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다. 나는 동생이 사랑스럽다.
(41) 가. 나는 갈비탕이다. (음식점에서)
　　나. 나는 감자국이다. (음식점에서)

(40)은 '이중 주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예이나, (41)은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40)이나 (41)이 같은 원리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거니와, 만약 (40)과 (41)이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밝혀질 수 있다면, (40)에 대한 다른 어떠한 논의보다도 우리의 논의는 그만큼 설명력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0)에 대해서 국어에 변형 생성 문법이 도입이 된 이후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홍배 (1970), 양인석 (1972)을 비롯하여, 이정민 (1976), 이익섭 (1978), 김영희 (1980), 김홍수 (1982), 이남순 (1985) 및 졸고 (1972, 1974) 등을 통하여 이 유형의 문장에 대한 관심은 끊임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논의가 가지는 특징을 어느 하나로 특징 짓기는 어려운 일이나, 그 대전제가 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가. (40)과 같은 예의 문장, 즉 이른바 '심리 동사' 구성에 있어서 문장의 앞에 오는 '나는'이란 성분은 서술어의 논항이다.

나. 이른바 '심리 동사' 구성은 '좋다, 나쁘다, 즐겁다, 흥겹다, 사랑스럽다. 놀랍다' 등과 같은 일련의 심리적인 혹은 자기 판단적인 혹은 주관적인 의미를 특징으로 하는 형용사의 경우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난다.

다. 위의 (가)와 같은 해결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국응도 (1968), 김영희 (1980) 등), 이 때 문장 앞에 오는 '나는'이란 성분은 상위절의 주어로 해석된다.

(42가)와 (42다)는 '심리 동사' 구성에 대한 논의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는 '나는'을 해당 서술어의 논항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상위문의 주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전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40)과 같은 예의 문두에 오는 '나는'이란 성분은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없음을 증시하기로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의한다.

첫째, (40)의 '나는'이란 성분이 서술어의 논항이라고 할 때, 그 심층격 역할(θ-role)로 흔히 선택되는 것은 '경험주(Experiencer)'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문에서 경험주 표시의 가장 전형적인 표지가 되는 '에게'에 대하여 (40)은 매우 이상한 반응을 보인다. 반드시 '는/은'과 같은 주제 표지가 나타나야만,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으로 성립될 수 있다(이익섭 (1978) 참조).

(40′) 가. ?나에게 음악이 좋다.

나. ?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
다. ?나에게 동생이 사랑스럽다.

(40″) 가. 나에게는 음악이 좋다.
나. 나에게는 호랑이가 무섭다.
다. 나에게는 동생이 사랑스럽다.

분명히, (40′)는 자연스러운 국어 문장이 되기 어렵다. 반면, (40″)에는 전혀 그러한 기묘성(oddity, deviency)이 없다. (40)의 '나는'이 그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 경험주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적어도 여기에는 무엇인가 더 특이한 요소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기로 하자.

(43) 가. 나에게 음악은 좋다.
나. 나에게 호랑이는 무섭다.
다. 나에게 동생은 사랑스럽다.

(43)은 (40′)에서 '에게' 성분을 그대로 놓아 둔 채, 주어라고 생각되는 성분에 '은/는'을 붙여 본 것이다. 이상하게도 그 성립에 아무런 이상도 없어진다(이익섭 (1978) 참조). 이익섭 (1978)에서는 (43)을 토대로 (40′)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느껴짐을 중요시하지 않았으나, (40′)의 기묘성과 (43)에서의 그 기묘성의 해소는 분명히 설명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워 보기로 한다.

(40′)(40″)(43)이 가지는 현상 자체를 가장 소박하게 관찰하는 경우, (40″)의 '나에게는'이 '은/는'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치라고 할 때, (40′)에서 '나에게'가 성립에 이상을 가지는 것은 '은/는'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40′)에서 '나에게'가 서술어의 논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제일 뿐인데 '에게'만으로는 주제 표시 능력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43)은 자연스럽다. '나에게'에 의미론적으로 미묘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음악은, 호랑이는, 동생은'에 쓰인 '은/는'에 의한 영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43가-다)에서 '음악은 좋다, 호랑이는 무섭다, 동생은 사랑스럽다' 등과 같은 구성이 주제를 가지고 이미 완성된 문장의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문장의 서술어와 관련되지 않는 위치로 밀려 가게 되는 의미론적인 작용을 받음을 의미한다. 이를 우리는 '주제 강화 조건'이라 불러,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44) 주제 강화 조건

'에게' 성분이 주제를 나타낼 때, 문장의 다른 성분에 전형적인 주제 표지가 나타나면, '에게'의 주제 표시 능력은 강화된다. 단, '에게'가 서술어의 논항과 관련되지 않을 경우이다.

여기서 '전형적인 주제 표시'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 '은/는'을 말하는 것이나, '이/가'에 강세가 놓이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40′)의 '이/가' 성분에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기묘성은 사라지게 되며, '나에게 음악이 좋기는 하다'와 같은 예에서도 기묘성은 느껴지지 않는다. (44)의 '주제 강화 조건'의 작용에 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유의 설명이 (40)의 '나는'이 서술어의 논항이 아니라, 논항과 무관한 주제라는 관점에 입각할 때에만 정당한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44)와 관련한 우리의 논의가 정당한 것이라면, (40)의 '나는'은 서술어의 논항이 되지 못하는 것이며, (40′)(40″)(43)의 현상을 국어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44)와 같은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할 때, (44)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에게' 성분을 가지지 않는 다음과 같은 예는 이미 그 자체로서 완전한 문장이다. '나는'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5) 가. 꽃은 아름답다. (=꽃은 아름다운 것이다)
나. 음악은 영원하다. (=음악은 영원한 것이다)
다. 호랑이는 무섭다. (=호랑이는 무서운 것이다)

(45)는 졸고 (1972)에서 상정된 바와 같은 '정언문(定言文)'적인 특성을 가진다. '꽃, 음악, 호랑이'에 대한 총칭적인 표현으로 그 속성을 드러내는 방법이다. (44)의 예가 '정언문'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에 있어 (45)에 '나는'이 들어갈 여지는 없다. (45)에서 서술어의 성격이 달라진 것도 아니다. '아름답다, 영원하다'는 이른바 '심리 동사'나 '주관 동사'가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동생은 사랑스럽다(=동생은 사랑스러운 것이다)'나 '음악은 좋다(음악은 좋은 것이다)'라고 하여도 문제의 성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이다. (45)에 '나는'이란 성분을 더할 경우 생기게 되는 차이는 오히려 우리 논의에 유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6) 가. 나는 꽃은 아름답다.
나. 나는 음악은 영원하다.
다. 나는 호랑이는 무섭다.

(46)이 (45)에 대하여 가지는 차이는 (46)은 발화 상황 특수적인 의미를 띠는 데 대하여 (45)는 발화 상황과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화 상황 특수성'이라는 것은, 가령 (46가)에서 '꽃'이 문제된다

고 하더라도, 발화 상황 속의 어떤 개체나 대상이 문제됨을 뜻한다는 것이다. (46)이 가지는 이러한 의미 특성은 전적으로 문두에 쓰인 '나는'이란 성분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우리는 (40)의 '나는'을 발화 상황 관련 범주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보려고 한다.

(45)는 (42다)와 관련하여, (40)의 '나는'을 상위문의 주어로 보려는 견해의 성립을 의심스럽게 한다. 상위문의 서술어가 남아 있지 않은 자리에 상위문을 상정하는 것은 '회복 가능성 조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45)와 (46)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의 상당한 부분을 상실하게 된다.

세째, (40)에서 '나는'이 논항이라고 한다면, (40)에는 Fillmore (1968)에 상정된 '일문 일격(一文一格)'의 원리에 의하여 '경험주'는 단 한 번만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40)에는 또 다른 '에게' 성분의 상정이 가능하다.

(47) 가. 나에게는 음악이 그 환자에게 좋다.
나. 나에게는 호랑이가 아이들에게 무섭다.
다. 나에게는 동생이 할아버지에게 귀엽다.

이러한 예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문장의 앞에 오는 '나에게는'이 하는 역할과 문장 속에 있는 '에게' 성분이 하는 역할을 명백하게 구별해 내는 것이 문제이다. 필자에게 있어 문두의 '나에게는'은 발화 상황 관련 성분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나'는 판단의 주체가 되고, 문장 속의 '에게'' 성분은 발화 상황 외의 대상으로 경험주가 된다. (40)이 감정 이입에 의한 표현이 아닌 한, 주로 1인칭과 관련해서만 자연스럽게 쓰이는 데 대하여, (47)에서 '나에게는'을 제외한 문장은 인칭적인 제약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쓰일 수 있다. '음악이 그 환자에게 좋다, 호랑이가 아이들에게 무섭다' 등과 같이 말하는 경우이다.

네째, (40)과 같은 문장은 단지 주로 근문(根文)에서만 쓰일 수 있을 뿐이며, (40)의 형식 그대로 또는 (40)의 '나는'을 '내가'로 바꾼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내포문 속에 그냥 쓰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김영희 (1980: 27)에서도 이미 지적된 현상이기는 하나, 그것은 '나는'이 상위문의 주어임을 보이는 근거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목적 자체가 우리와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48) 가. *철수는 내가 음악이 좋다고 믿는다. ((40가)의 의미로)
나. *철수는 내가 음악이 좋음을 눈치챘다. ((40가)의 의미로)
다. *내가 호랑이가 무섭더라도, 너는 상관 말아라.
라. *내가 동생이 사랑스럽거든, 네가 눈짓을 해라.

마. ?내가 음악이 좋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바. ?내가 음악이 좋으면, 너는 미술이 좋다.

(48가-라)는 거의 성립할 수 없으며, (48마, 바)는 성립한다고 해도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48가, 나)가 성립하는 경우는 발화 상황 범주로서의 '나는'이 아니라, 경험주로서의 '내'가 문제되는 경우이다.

문제는, 왜 (48)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21)과 같은 종류의 '근문 조건'이다. (21)은 '상황 공범주'에 대한 것이나, 공범주가 아니라도 상황 관련 범주('상황 범주'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가 주로 근문에만 주로 국한되어 쓰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두 조건은 다음과 같이 결합될 수 있다.

(49) 상황 범주 근문 조건
상황 관련 범주나 상황 공범주는 주로 근문에 나타난다.

(49)는 물론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지배적인 경향에 있어 상황 범주가 근문에 나타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48)은 문제의 성분 '나는'이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또한 마찬가지로, (40)의 '나는'이 해당 서술어의 논항이 아니라, 상위문의 주어라 하더라도, (48)의 이유는 해명될 수 없다. 한 문장 속에 다른 문장이 내포되고 그에 다시 다른 문장이 내포될 수 있다는 것은 '순환성'의 기본적인 원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48)과 같은 현상을 야기시켜야 할 이유가 없다.

다섯째, (40)와 같은 예의 '나는'이란 성분은 비단 형용사(정서 표현의)를 서술어로 하는 문장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유형의 문장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19]

(50) 가. 나는 철수가 내일 학교에 간다.
나. 나는 내일 비가 온다.
다. 나는 내일 일본과의 경기에서 우리 나라가 이긴다.
라. 나는 오늘 철수가 온다.
(51) 가. 나는 창수가 범인이다.

---

[19] 여기서 '거의 모든 유형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문'이나 '동사문' 또는 '형용사문'을 가리킨다. '나는'이 거의 아무런 저항감 없이 부가될 수 있는 것은 주로 평서문에 국한되는 현상이다. 의문문이나 명령문에는 '나는'의 부가가 어렵거나 특이한 의미를 띠게 된다. '나는'이 부가되면 판단의 의미를 띠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가 의문이나 명령과는 어울릴 수 없다.

나. 나는 저것이 명품(名品)이다.
다. 나는 철수가 바보이다.
(52) 가. 나는 인생이 허무하다.
나. 나는 이 산보다 저산이 높다.
다. 나는 그 분이 오늘은 집에 계시다.

(50)은 동사문에 '나는'이란 성분을 더해 본 것이다. (51)은 명사문에 '나는'이란 성분을 더해 본 것이며, (52)는 '심리 동사'라고 보기 어려운 형용사문에 '나는'이란 성분을 더해 본 것이다. 어느 예나 그 성립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 (50)~(51)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심리적인 사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떤 문장에든 '나는'이 덧붙어 쓰이면, 문맥은 불투명하게(opaque) 된다. (50)(51)에서 '나는'이란 성분을 제외할 경우, 나머지 문장만으로도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나는'이란 것이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52가)의 '허무하다'나 (52다)의 '계시다'는 종래 '심리 동사'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과 함께 생겨나는 특이성은 그것이 '심리 동사' 구성과 酷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예의 (40)과 같은 '심리 동사' 구성이 어느 특정한 부류의 문장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는'에 의하여 특이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특성을 보다 강하게 가짐을 의미한다.

(53) 가. ?너는 철수가 내일 학교에 간다.
나. ?너는 내일 비가 온다.
다. ?그는 창수가 범인이다.
라. ?그는 인생이 허무하다.
마. ?너는 철수가 바보이다.
바. ?너는 그 분이 오늘 집에 계시다.

(53)은 '판단문'으로서는 그 성립에 이상을 가진다. 이는 (40)의 예들이 감정 이입에 의하지 않는 한, 2인칭이나 3인칭 대상에 대하여 그 성립에 이상을 가지는 현상과 같다. (53가)가 '너에게 있어서는 철수가 내일 학교에 간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 잘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장이 아니다. (53나)에 있어서도 '너는'이 장소적인 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 성립에 이상이 없다. 이것도 우리가 다루는 예는 아니다. 또한, (53라)가 '그의 인생은 허무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우리가 다루는 예의 성격은 아니다.

(50)~(52)와 (40)이 가지는 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모아진다.

(54) 가. 나는 음악을 좋아한다.
나. *나는 이 산보다 저 산을 높아한다.

하나는, (40가)는 (54가)와 같이 '-어하다' 구성으로 바꿀 수 있는 데 대하여, (50)~(52)는 (54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그러한 구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40)과 (54)는 그 문장 구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임을 지적하면 족하다. '나는 음악이 좋다'에 있어서 '나는'은 발화 상황 관련 요소로서 주제일 뿐인데, 가령 (54가)에서의 '나는'은 이미 단순한 주제가 아니다. (54가)에서 '나는'은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논항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하나는 (40)은 (54가)와 거의 같은 정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 대하여 (50)~(52)는 전혀 그러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54가)와 (40가)는 동일한 정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40가)의 '나는 음악이 좋다'도 (50)~(52)와 마찬가지로 판단문에 지나지 않으나, 그것이 특히 정서적인 사실과 관련된 판단이기 때문에, (54가)와 유사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이에 대해서는 졸고 (1972, 1974)에서 이미 다룬 바 있다). 따라서, (50)~(52)와 (40)과는 그 구성의 특징이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42나)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 된다.

여섯째, (42다)의 해석 방법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40)에서 '나는'이란 것이 상위문의 주어라고 한다면, 그 서술어를 복원시킨 다음의 (56), (57나)에서는 인칭 제약이나 내포 현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데 대하여, 왜 유독 (40)의 예에서만 그런 제약이 성립하느냐 하는 것이다.

(55) 가. 나는 축구가 좋다.
나. ?그는 축구가 좋다.
(56) 가. 나는 축구가 좋다고 생각한다.
나. 그는 축구가 좋다고 생각한다.
(57) 가. ?*철수는 내가 축구가 좋음을 믿는다.
나. 철수는 내가 축구가 좋다고 생각한다고 믿는다.

현상 그대로라면, (55나)는 감정 이입에 의하지 않는 한, 성립에 이상을 가진다. 발화 상황 관련 성분이 '나는'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서술어를 복원시킨 (56나)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 동일 문장을 다른 문장 속에 내포시킨 (57나)에서도 그 이질성은 마찬가지이다. (57가)는 매우 제약적인 데 대하여 (57나)는 아무런 이상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40)을 있는 그대로 하나의 단일문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며, '나는'은 서술어의 논항이 아니라 그와는 별개의 성분

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예의 '나는' 이 발화 상황 관련 범주임을 전제로 하였다. 그것은 논항과 관련되지 않는 주제로 해석된다.

이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발화 상황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의미론적이며 화용론적인 특징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인 경우, '나'는 화자로서 말을 하는 사람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말을 한다는 평면적인 사실만을 전제로 하여서는 (40)이 가지는 특이성, 또는 (50)~(52)가 가지는 특이성이 이해되기 어렵다.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발화 상황과 관련하여 '나'는 단순한 1인칭적인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이성이 만약 다른 언어에는 나타나지 않고 국어에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국어가 가지는 특이성의 일면이 (40)과 같은 예에 투영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40가)의 구조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상정될 수 있다.

(58) [TOP 나는] [NP 음악이] 좋다.

문장 구조상으로 '나는'은 단지 주제에 불과한 것이며, '음악이'는 주어에 불과한 것이다. (40)을 나타난 그대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58)은 강점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두의 '나는'을 서술어의 논항과 관련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나는'이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라, 상황 관련 주제라는 것이 요체이다. (58)이 '생각'이나 '판단'을 문제삼을 수 있는 것은 발화 상황 속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특징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어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다. 이 해결법과 관련하여 (58)이 다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59) 가. 나는 생각에 음악이 좋다.
나. 나는 마음에 음악이 좋다.
다. 나는 느낌에 음악이 좋다.

(60) 가. 나에게는 음악이 좋다.
나. 나의 생각에는 음악이 좋다.

먼저 (60)을 보기로 하자. 졸고 (1972, 1974)에서는 이숭녕 (1956), 박양규 (1971)에 따라서 '에게'가 'X의 Y에'와 같은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60가)나 (60나)가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에게' 자체를 'X의 Y에'와 동일시했다기보다는 의미 해석의 측면에서 그런 일면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아직도 유효하다. 다만, 예의 '나에게는'이나 '나의 생각에는'이 결코 서술어의 논항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나에게'와 같은 형식 속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판단'과 같은 의미론적인 특이성을 암시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60)에 인칭 제약과 같은 것이 성립하지 않는 일이 이해될 수 없다.

(61) 가. 너에게는 음악이 좋다.
　　나. 그에게는 음악이 좋다.
(62) 가. 너의 느낌에는 음악이 좋다.
　　나. 그의 마음에는 음악이 좋다.

다소 문맥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61)(62)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적어도 '나는 음악이 좋다'와 같은 문장의 '나'자리에 '너'나 '그'가 쓰인 예보다는 이상하지 않다. '에게'의 어떤 요소 속에 '생각'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와 유사한 어떤 의미를 암시하는 어휘적인 요소가 있다고 상정해야 한다. 따라서, '에게'을 'X의 Y에'와 전적으로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 해석의 어떤 측면은 아직도 그러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다른 문제의 하나는 (60)(61)(62)에서 '은/는'을 제외한 '나에게, 너에게, 그에게, 나의 생각에, 너의 느낌에, 그의 마음에' 등과 같은 성분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도 주제가 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취하기로 한다. 그것은 '은/는'만이 주제 표지가 된다고 하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다른 것이지만, (60)(61)(62)에서 '에게'나 '에' 성분이 서술어에 대하여 논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장 밖으로 밀려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장 밖으로 밀려나갈 때, 주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그 성분이 차지하게 될 가장 그럴 듯한 자리는 주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20] 다음은 이러한 사실을 말해 주는 하나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3) 가. 나의 생각에, 음악이 좋다.
　　나. 그의 생각에, 축구가 좋다.
　　다. ?나에게 음악이 좋다.

---

[20] 어떤 성분이 서술어의 논항이 되지 못하고, 문장 밖으로 밀려나갈 때, 그 성분이 가질 수 있는 자격은 비단 주제만이 아니라는 심사 위원의 지적은 정당하다. 논항 외에도 부가어(Adjunct)가 부사어로도 상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할 것은 예의 '생각에, 느낌에, 마음에' 등과 같은 요소가 다른 종류의 부사적인 성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입증해 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요소가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중시하기로 한다.

라. ?그에게 음악이 좋다.

(63가, 나)는 (60가)(61나)와 그 표현 의미가 거의 다르지 않다. '은/는'에 의한 도움이 없이도 그 주제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그러나, (63다, 라)에는 문제가 있다. '에게'의 주제 표현 능력은 (63가, 나) 보다는 약하다. 그러나, (44)의 '주제 강화 조건'과 같이 '에게' 성분이 다른 요인에 의하여 문장의 논항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될 때, 상황 관련 범주와 관련하여 '에게'의 주제 표시 능력은 되살아난다.

이제 (59)를 보기로 하자. 예의 '생각에, 마음에, 느낌에'라는 것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하자. (63가, 나)의 예가 있고, (44)의 '주제 강화 조건'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생각에' 등이 서술어의 논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소극적인 증거가 된다. 이 때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상정될 수 있다.

(63) [$_{TOP}$ 나$_{\alpha}$는] [$_{TOP}$ 생각$_{\alpha'}$에] 음악이 좋다.

여기서 '나는'을 제 1 차적인 주제, '생각에'를 제 2 차적인 주제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 2 차적인 주제가 제 1 차적인 주제와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일이므로, 우리는 (63)에 (18)의 지표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표기법이 가지는 장점의 하나는 '생각' 앞에 다시 속격 성분을 상정하고, 그에 대한 지표 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생각에'는 '생각이'와 같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생각이'라고 하여 주어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위의 논의에서도 분명해지는 일이거니와 졸고 (1972)에서도 '이/가'가 언제나 주격 조사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였다.

(58)은 (63)과 그 구조가 평행적임이 주목된다. 따라서, (58)에 감추어진 공범주 하나를 제 2 차적인 주제로 설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된다.

(64) [$_{TOP}$ 나$_{\alpha}$는] [$_{TOP}$ $e_{\alpha'}$] [$_{NP}$ 음악이] 좋다.

이에 상정된 제 2 차적인 주제는 (18)적인 지표법에 의하여 제 1 차적인 주제와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관련을 맺는, 즉 그로부터 유도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제 2 차적인 공범주 주제의 내용은 아마도 (59)에 나타난 '생각, 느낌, 마음'등과 같은 의미론적인 특징을 가지는 어떤 요소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 1 차적인 주제인 '나는'이 발화 상황 관련 범주인 한에 있어 이 제 2 차적인 공범주 주제는 제 1 차적인 주제속에 흡수될 수 있다고 상정할 수 있다. 이를 우리는 발화 상황 범주의 제 2 차적인 공범주 주제 흡수 현상으로 부르기로 한다.

(65) 발화 상황 범주의 공범주 흡수 조건
제 1 차적인 주제가 발화 상황 범주이고, 제 2 차적인 주제가 공범주로 상정될 때, 제 2 차 공범주 주제는 제 1 차 주제 속에 흡수될 수 있다.

위의 (65)는 (63)과 (64)가 가지는 차이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63)은 인칭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데 대하여 (64)는 예의 인칭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이는 (64)의 공범주 주제는 발화 상황 범주인 제 1 차적인 주제에 의하여 발화 상황 속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하여 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나, (63)에서는 이미 그 내용이 외현적인 성분으로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구조는 (64)라고 해야 하며, (58)은 (65)의 의미론적인 과정이 일어난 뒤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매우 미묘한 것이지만, (64)와 (63)의 차이는 해명되지 않는다.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의 하나는 (41)에 제시한 '주문(注文)'의 경우이다. 그 주어를 공범주로 상정하면, 아래와 같은 구조가 된다.

(66) [TOP 나$_\alpha$는] [NP $e_{\alpha'}$] 갈비탕이다.
(67) 가. 나는 선택이 갈비탕이다.
나. 나는 주문이 갈비탕이다.
다. 그는 선택이 감자국이다.
(68) 가. ?*나는 갈비탕이다. ('먹는 상황' 외에서)
나. ?그는 갈비탕이다. ('먹는 상황'에서)
(69) 가. ?*철수는 내가 갈비탕이라고 하였다.
나. ?*영희는 철수가 감자국이라고 하였다.

(64)와 (66)이 다른 것은 (64)에서는 '발화 상황' 관련 공범주가 제 2 차적인 주제 공범주로 나타나는 데 대하여, (66)에서는 그것이 공범주 주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외의 점에 있어서는 모든 특징이 (40)의 예와 거의 아무런 차이를 가지지 않는다.

(68가)와 같이 '먹는 상황' 외에서 '나는 갈비탕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은 (66)의 '나는'이 '상황 관련 범주'임을 말한다. 다른 인칭에 대하여 성립에 이상을 가지게 되는 것은 (68나)가 보이는 바와 같다. (68나)의 제약성이 보다 그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먹는 상황'의 전제가 그만큼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69)와 같이 내포문 속에서 잘 쓰이지 않는 것도 (49)의

'상황 범주 근문 조건'과 관련된다. 공범주 주어의 자리에 상황과 관련된 어휘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59)와 성격이 같으며, 그 경우 (67다)와 같이 인칭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되는 것도 (62)의 경우와 다름없다. 따라서, 우리는 (18)적인 표기법에 의하여 (41가)의 주어의 자리에 공범주 주어를 설정할 수 있고, 그것이 발화 상황 속의 '나'와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발화 상황 속의 '나'와 관련하여 (66)의 주어가 주제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은 실제로 쓰이는 (41)의 예가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논의가 정당한 것인 한에 있어 국어에 있어서 발화 상황과 관련되는 '나는'과 같은 주제는 제 2 차적인 주제나, 주어를 흡수할 수도 있다는 국어의 특이한 현상이 확인될 수 있다.

4. 기타의 통사적인 空範疇

4.1. 여기서 우리가 상정한 통사적인 공범주란, (1)의 '주어 전제 조건'에 의한 주어 또는 '하위 범주화 규칙'에 따른 어떤 논항이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공범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는 우리가 앞에서 검토한 예 외에도 상당수의 공범주가 포함된다. 종래에 '동일 명사구 삭제(Equi-NP deletion)'에 의하여 설명되던 대부분의 예들이 이에 속한다. 몇 가지 예만을 보이기로 한다.

(70) 가. 철수는 내가 때렸다.
나. 내가 때린 철수가 소리 없이 울었다.
다. 내가 때린 것이 철수이다.

(71) 가. 철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나. 흉악 무도한 악인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 있다.
다. 나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
라. 철수는 영희를 미국에 가게 하였다.
마. 이제야 비로소 철수가 공부하게 되었다.
바. 철수가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공부한다.
사. 비가 오지 않는다.

(70가)는 '주제-설명'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목적어가 공범주이며, (70나)는 관계절을 가진 구성으로, 관계절 내의 목적어가 공범주이고, (70다)는 '의사-분열문' 구성으로 '전제부'의 목적어의 자리에 공범주가 상정된다. (70)의 기저 구조 또는 '결속 이론'과 관련하여 공범주의 지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70가)의 공범주가 문체적인 공범주가 아니라 통사적인 것인 한에 있어, 그것은 '철수' 외의 다른 대상일 수 없다. 반면, (70나, 다)에 있어서는 통사적인 공범주로만 해석되고 문체적인 공범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71)은 이른바 '동사구 보문'을 가지는 예들로서, 보문의 주어가 상위문의 주어와의 일치에 의하여 '동일 명사구'가 삭제되는 것으로 설명되던 것이다. 그러나, 의미 내용을 가지는 요소의 삭제가 필연적으로 '회복 가능성' 제약에 걸리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들 예의 동사구 보문의 주어의 자리에도 공범주가 상정된다. 이론적인 문제를 논의로 한다면, 동사구 보문에서 주어의 지표도 별다른 이의가 없이 결정될 수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상위문의 주어와 보문의 주어가 동지표되는 것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71)의 어떤 예에는 앞에서 우리가 상정한 바와 같은 상황 공범주의 상정이 가능한 예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주 명백한 몇 가지 예만을 다루어 보기로 한다.

4.2. 상황 공범주와 명백한 관련을 보이는 예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먼저 그 예를 보이고 그 분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는 이미 졸고 (1974)나 안명철 (1983)에서도 검토된 바 있다.

(72) 가. 비가 올 것이다.
나. 비가 | 올 것이다.
다. 비가 올 것|이다.

(72가)의 직접 성분 분석은 흔히 (72나)와 같이 행해진다. 그러나, '올'이 관형사형이며 그 '오-'가 분명 서술어이므로, 여기에도 (1)의 '주어 전제 조건'에 의하여 그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주어가 다름 아닌 '비가'라면, 다른 종류의 성분 분석은 (72다)와 같이 된다. 그렇다면, (72다)는 '명사구+계사'로 된 서술어만을 가진 구성이어서 (1)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72다)에 상정되는 주어를 *e*라고 할 때, 적어도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된다.[21]

---

[21] 계사에 대해서는 '지배와 결속' 이론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homsky (1985: 135-6)에서의 '가시성 조건(Visibility Condition)'과 관련하여, 영어에서 계사 뒤에 오는 명사구가 격-여과에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격-여과는 모든 음성 제료를 가지는 명사구가 (추상적인) 격을 가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가시성 조건'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영어의 '계사'가 뒤에 오는 명사구에 격을 배당하지 않고, 따라서 '가시성 조건'은 그 명사구가 심층격-역할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 준다. 단, 그것이 'arguable'하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국어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 '이다'는 격도 배당하지 않고,

(73) 가. [NP e] [NP비가 올 것]이다.
나. [TOP e_α] [NP $e_{\alpha'}$] [NP 비가 올 것]이다.

(73가)는 (1)에 의하여 공범주 주어를 상정한 것이며, (73나)는 (6)의 '근문 주제 조건'에 의하여 공범주 주제를 상정하여, (18)의 지표법을 적용한 것이다. 공범주 주어는 최소한 공범주 주제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내용을 가지는 것이거나, 최대한 동일한 대상이다. 편의상 (73가)만을 보기로 한다. 그 주어가 상황과 관련되고 있다는 한 가지 방증은 예의 '것'을 '모양'이나 '상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것'이 대상 일반을 가리킨다고 할 때, '것'과 '상태'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방증이 되기에는 족하다. 문제는 (74가)에 주어가 비어 있다는 데 있다.

이를 지지해 주는 다른 증거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73)의 예가 내포문에 나타나는 일이 다소 제한된다는 것이다.

(74) 가. ?영희는 내일 비가 올 것임을 추측하였다/말하였다/바란다.
나. *영희는 내일 비가 올 것이었으면 한다.
다. 영희는 내일 비가 왔으면 한다.
라. ?*영희는 내일 비가 올 것이게 하였다.
마. *내일 비가 올 것이어졌다.

(74다)와는 달리 (74나)가 전혀 성립하지 않고, '-어 지다' 구성인 (74마)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21)의 '상황 공범주 주제 근문 조건'이나, (49)의 '상황 범주 근문 조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은 가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예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우리로서는 당연한 일

심층격-역할도 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다른 한편 '것이다'의 '이다'를 단순한 계사로는 보지 않으려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가능하다. 국어에는 계사 '이다' 앞에 오는 명사구에는 '주격'이 배당된다. 이는 '이다'의 부정인 '아니다'가 올 때, 계사에 선행하는 명사구가 '이/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이는 형태론적인 격이지 추상적인 통사적인 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언어의 현실과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다. 만약 계사 앞에 오는 명사구가 격을 가진다면, 이에도 심층격-역할이 배당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층격-역할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상정은 가능하다. 즉, 계사'이다'가 독자적으로 어떤 심층격 기능을 배당한다기보다는 '이다'가 앞에 오는 명사구와 합하여 주어에 대하여 심층격-역할을 배당하는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 경우, 주어의 상정은 '확대 투영 원리'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심층격 배당에 대해서는 예외가 된다. 우리가 제시한 (1)은 '보편 문법'의 '인허 선택(licensing option)'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논의에 의하지 않고도, 계사문에 대하여 주어를 상정할 수 있다. '것이다'의 '이다'를 따로 설명할 이유도 없다.

이다. 대부분의 예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색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72나)와 같은 분석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인가 물을 수 있다. (74다)에서 주제가 '비는'과 같이 상정되는 경우, (72나)적인 구조도 가능한 해석의 하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 경우에는 (74나)의 주어뿐만 아니라 명사구의 주어의 자리에도 공범주가 나타나는 구조가 된다.

(75) [TOP 비$_1$는][NP e_1] [NP e_1 올 것]이다.

이 때에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근문의 공주어와 내포문의 공주어에 동지표를 배당해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73나)나 (75)와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는 예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더 포함된다.

(76) 가. 내가 그 곳에 갈 뿐이다.
나. 비가 올 듯하다/듯싶다/것 같다.
다. 누가 올 성싶다.
라. 비가 올 따름이다.
마. 그가 나타날 법하다.

이들은 그 구성 자체가 (72가)와 평행적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상의 특징도 상황과 관련되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예이다. 문제가 분명히 상황과 관련되어 있어 '상황은'과 같은 주제를 허용하는 경우, 이들의 구조는 (72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75)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2]

---

[22]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상황은'과 같은 요소는 국어의 다른 온전한 문장에도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서만 중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가령, '철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은 예에도, '상황은 철수는 학교에 간다'와 같이 '상황은'의 첨가가 비교적 자유롭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문장에 '상황은'이란 요소가 자유롭게 첨가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의문문이나 명령문에는 '상황은'의 요소가 자유롭게 쓰일 수 없다. '*상황은 네가 어디에 가느냐?'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황은 네 이름을 대라'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평서문에 왜 '상황은'과 같은 요소가 덧붙을 수 있는가이다. 이는 평서문이 일반적으로 어떤 상황을 기술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상황이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평서문이라고 하더라도, 총칭적인(generic) 특징을 가지는 문장에는 '상황은'이 자유롭게 쓰일 수 없다. 문제(즉, 주제)가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은'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앞의 (2)에서 전제한 우리의 '근문주제 조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따라서, (2)를 보다 극단적으로 적용할 때, 국어에는 많은 수의 공범주 주제가 생겨나게 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77) 가. 상황은 내가 그 곳에 갈 뿐이다.
나. 상황은 비가 올 듯하다/듯싶다.
다. 상황은 누가 올 성싶다.

등등과 같다. 그러나, 가령 (76가)가 '가는 것이 나뿐이다'와 같은 의미 해석을 가지는 경우는 (75)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여겨지다, 생각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싶다'와 '보다'가 가지는 특이성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23]

(78) 가. 내가 집에 갈까 싶다/보다.
나. *네가/그가 집에 갈까 싶다/보다.
(79) 가. *내가 집에 갔는가 싶다/보다.
나. 네가/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보다.
(80) 가. 철수가 집에 갔지 싶다/*보다.
나. 나는 네가/그가/철수가 집에 갈까 싶다/*보다.
다. 나는 철수가 집에 갔을까 싶다/*보다/갔나 싶다/*보다.
(81) 가. 나는 집에 갈까 싶었다/*싶겠다/*보았다/*보겠다/싶더라/*보더라.
나. 철수가 집에 갔을까 싶었다/*싶겠다/*보았다.
(82) 가. *내가 집에 갈까 싶지 않다/보지 않다.
나. 그가 집에 갔을까 싶지 않다/*보지 않다.
(83) 가. *내가 집에 갈까 싶음을 주장하였다.
나. *내가 집에 갈까 봄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이 암시해 주는 바는 다음과 같다.

(84) 가. '싶다, 보다'가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 내포문의 주어는 1인칭이어야 한다. ((78가)의 경우)
나. '싶다, 보다'가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 내포문의 주어는 2, 3인칭이어야 한다. ((79나)의 경우)
다. 내포문이 화자의 추측((80나, 다)의 '-을까'의 경우)이나, 주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문장 구조와 관련되어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23] 예문 (77나)와도 관련되는 것이지만, '싶다, 하다' 구성에 '상태'라는 주어를 상정한 것은 박병수 (1974)이다. 차현실 (1984)에서는 (77나)와 같은 예뿐만 아니라, '싶다'의 쓰임 모두를 포괄하여 다루는 자리에서 그 기저에 '상태'나 '상황'과 같은 요소의 상정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우리는 '상태'나 '상황'과 같은 공범주가 상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적인 판단((80가)의 '-지'의 경우)을 나타내는 경우, '싶다'만이 쓰일 수 있고, '보다'는 쓰일 수 없다.

라. '보다, 싶다'에는 시제 형태가 자유롭게 쓰일 수 없다.((81)의 경우)

마. '보다, 싶다' 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다시 내포되기 어렵다.((82)(83)의 경우)

(84다)는 '보다'와 '싶다'의 의미 특성이 매우 비슷하지만, 그 통사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81다)에서 '화자의 추측'이라는 것을 '주관적인 판단'에 귀속시킨다면, '싶다'는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 특성을 보다 강하게 가지는 반면, '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의 의미 특성을 보다 강하게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4가)와 (84나)를 기초로 하여 '보다'나 '싶다'를 둘로 나누어, 어떤 '보다'나 '싶다'는 1인칭 주어와만 어울리는 데 대하여 어떤 '보다'나 '싶다'는 2,3인칭 주어와 잘 어울린다는 결론을 내기 쉽다. 그러나, 이는 분명 바람직한 해결이 될 수 없다. 두 의미가 내포문의 인칭에 관한 한, 적어도 유사 상보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78)~(83)의 어느 예에서나 나타나고 있는 발화 상황 관련 범주로서의 '나'의 존재와 그 생각이나 느낌이다. (78가)와 (79나)에 대한 다음과 같은 환언 관계를 보기로 하자.

(85) 가. 나는 느낌이 내가 집에 갈까 싶다/보다.

나. 나는 상황이 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

다. *나는 상황이 그가 집에 갔는가 보다.

라. 상황이 그가 집에 갔는가 보다.

이러한 예가 (78)~(83)의 모든 예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나는'이 발화 상황 범주일 경우, 발화 상황 속의 '나'라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주체라는 사실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이는 (40)의 해석과 동일한 해석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85가)의 '느낌이'는 '나는'이란 제1차적인 주제로부터 유도된 주어이며, (85나)의 '상황이'는 그 판단의 대상이 되는 주어이다. 내포문의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주어이다. 판단의 대상 속에 자기의 의도를 포함시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부적격하므로 (79가)의 성립에 왜 이상이 있게 되는지가 이해될 수 있다. 반대로 주어가 '느낌이'(또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판단'의 주체로서의 '나')라고 할 때, (78가)에 왜

'나'만이 내포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49)의 '상황 범주 근문 조건'은 (84마)의 현상을 보다 쉽게 설명해 준다. (85다)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보다'와 '싶다'의 차이를 보여 준다. 만약, '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나타내고, '싶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는 우리의 전제가 올바른 것이라면, 이는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85라)의 구조는 발화 상황 범주로서의 '나'를 부각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상황' 자체를 부각시키는 구조이다.

(85가)와 관련되는 (78가)의 구조 및 (85나)와 관련되는 (79나)의 구조, (85라)와 관련된 구조를 우리의 논리에 따라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86) 가. [TOP e_α] [NP $e_{\alpha'}$] 내가 집에 갈까 싶다/보다.
나. [TOP e_α] [NP e_β] 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
다. [TOP e_β] [NP $e_{\beta'}$] 그가 집에 갔는가 보다.
라. [TOP e_α] [TOP $e_{\alpha'}$] [NP e_β] 그가 집에 갔는가 싶다.

여기서 공범주 알파는 발화 상황 범주로서의 '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공범주 베타는 상황 공범주 자체를 나타낸다. 두 가지 공범주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만, 현재의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들이 모두 상황 자체에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기로 한다. (18)에 전제된 우리의 지표법에 따라, 알파-프라임이나 베타-프라임은 이미 전제된 범주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범주이다. (86가)의 공범주 알파 주제는 발화 상황에 주어진 '나'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 예의 공범주 알파-프라임은 공범주 주제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내용을 가지는 주어이다. '생각, 느낌, 판단'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86나)의 공범주 베타 주어는 상황 자체이다. 공범주 알파 주제는 역시 (86가)의 경우와 같다. 제 1 차적인 주제 외에 제 2 차적인 공범주 주제를 상정할 수도 있는데, 그 때의 구조는 (86라)와 같다. 제 1 차적인 주제가 제 2 차적인 주제를 흡수할 수도 있다. 이는 (86가)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86가)에서는 흡수되는 것이 주어인데, 주어의 흡수도 우리가 앞에서 익히 보아 온 현상이므로 다시 문제될 것이 없다. (86다)는 상황 자체가 공주제로 나타나고 그에서 유도된 어떤 내용이 주어로 상정됨을 보인 것이다. 주제와 주어의 내용이 동일한 것일 수 있다.

4.4. '쉽다'가 내포문을 가지는 경우의 특징도 상황과의 관련에서 다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쉽다'는 송석중 (1985)에서 '쉽다1'과 '쉽다2'로 나누어 그 특징이 면밀히 검토된 바 있다. '쉽다1'은 용이성(容易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쉽다2'는 가능성(可能性)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기 별개

의 어휘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를 하나의 어휘로 취급하기로 한다. 먼저 예를 보기로 하자.

(87) 가. 영희는 집에 갔기 쉽다. ('가능성'의 뜻만을 가진다)
나. 영희는 집에 가기 쉽다. ('가능성'과 '용이성'의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88) 가. 영희는 예쁘기 쉽다. ('가능성'의 뜻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철수는 군인이기 쉽다. ('가능성'의 뜻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89) 가. 그 때 영희는 집에 갔기 쉬웠다. ('가능성'의 뜻만을 가짐)[24]
나. 그 당시 영희는 집에 갔기 쉬웠을 것이다.
다. ?그 때 이미 영희는 집에 갔기 쉽겠다.
라. 영희는 집에 가기 쉽더라. ('가능성'과 '용이성'의 두 가지 뜻을 가질 수 있다)

(90) 가. *영희는 집에 갔기에 쉽다. ('가능성'의 뜻으로도 성립 안 함)
나. 영희는 집에 가기에 쉽다. ('용이성'의 뜻만을 가진다)
다. ?영희는 예쁘기에 쉽다. ('용이성'의 뜻만을 가진다)

(91) 가. ?나는 영희가 집에 갔기 쉬움을 알았다.
나. *영희가 집에 갔기 쉬워졌다.
다. 나는 영희가 집에 가기 쉽도록 하였다. ('쉽다'는 가능성의 뜻을 가지기 어렵다)

(87)~(91)의 예에서 추출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92) 가. 내포문이 정태적인 특징을 가질 때(형용사문이나 계사문 또는 과거 시제문)에는 '가능성'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포문이 과거 시제를 가질 때에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의 의미만을 가진다.
나. '가능성'의 의미로서의 '쉽다'는 시제 형태를 자유롭게 가질 수 없다. ((89다)의 제약성을 말한다. '용이성'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다. '가능성'의 의미로서의 '쉽다'는 자유롭게 다른 문장 속에 내포될 수 없다. ((91)의 경우)
라. '가능성'의 의미로서의 '쉽다'는 '-기에' 구성으로 바꾸어 볼

[24] 송석중 (1985)에서는 (89가)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였으나, 필자의 직관은 그와 다르다. (90)의 예는 송석중 (1985)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수 없다. ((90)의 경우)

(92가)는 내포문의 성격의 정태적이냐 혹은 동태적이냐에 따라, '쉽다'의 의미가 둘로 갈리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유사 상보적인 분포라 할 수 있다. 이는 '쉽다'가 가지는 '용이성'이나 '가능성'의 두 의미가 각기 별개의 어휘 항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휘의 다의성으로 이해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적어도 내포문의 의미론적인 특징에 따라 같은 어휘가 다른 뜻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능성'이나 '용이성'이라는 것이 의미론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직관적으로 어떤 일이 용이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큰 것이며,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면 그만큼 용이하다고 하는 논리는 매우 자연스럽다. 이들 의미를 '쉽다1'과 '쉽다2'로 분리하는 것은 (92)와 같은 특징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88)이 '용이성'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90다)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상태 자체가 문제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가는 과정이 문제되느냐에 따라, 상태 자체가 문제될 때는 '가능성'의 의미가 부각되고, 어떤 상태로 가는 과정이 문제될 때는 '용이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기타 우리에게 주목되는 것은 (92나)가 '보다, 싶다'의 경우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 (92다)는 우리의 (49)의 '상황 범주 근문 조건'을 상기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하자.

(93) 가. 상황은 영희가 집에 갔기 쉽다.
나. 상황은 영희가 집에 가기 쉽다.

(93)에는 '상황은'이란 주제를 더 상정하였다. 그러나, 예의 성립에는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맥이 보다 분명해진다. '쉽다'가 서술하는 것이 '상황'에 대한 것임이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상황 자체는 정태적이며, 단지 잠재적인 가능성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왜 (93가)의 '쉽다'가 '가능성'의 의미로 해석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93가)와 같이 상황 자체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상황 중심적인 의미'라 부르기로 한다.

(93가)와 마찬가지로 (93나)에도 '상황은'이란 성분이 상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93나)는 '가능성'과 '용이성'의 두 가지 의미가 표현될 수 있다. '쉽다'를 '쉽다1'과 '쉽다2'로 나누는 접근 방법에 의하면, (93나)의 두 가지 의미는 어휘적인 중의성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기로 한다. (93나)는 화자가 어떠한 의미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능성'의 의미와 '용이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상황 자체에 관심의 초점이 주어지는 경우, (93나)가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93가)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상황 자체는 정태적인 것이며, '영희가 집에 가는 것'은 그 상황이 가지는 잠재적인 가능성일 뿐이다. 반면, 화자 관심의 초점이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물의 행동이나 과정의 되어 가는 쪽에 있을 때, '용이성'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일 때, (90나)와 같이 '-기에'가 성립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과정에 대하여 상황이 그와 더불어 작용하게 되는 양상을 표현하기에 알맞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이러한 설명 방법이 '쉽다'를 '쉽다1'과 '쉽다2'로 나누는 방법에 대하여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것임은 (88)에 대한 설명력에서 드러날 수 있다. '쉽다2'가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면, (88)에는 '쉽다2'만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88가)의 '예쁘기'가 예쁘게 되는 과정을 문제삼는 경우, (88나)의 '군인이기'가 군인이 되는 과정을 문제삼는 경우는 '용이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상황 중심적인 의미'가 문제될 때는 '가능성'의 의미가 드러나고 '과정 중심적인 의미'가 문제될 때는 '용이성'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93나)가 '상황 중심적인 의미'가 아니라 '행동이나 과정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의 구조를 암시해 줄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93′) 나. 영희는 상황이 집에 가기 쉽다.

(93′나)는 '영희'가 제1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동이나 과정 중심적인 의미'를 표현하기에 알맞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게 된다.

(94) 가. [$_{TOP}$ e_β] [$_{NP}$ 영희가 집에 갔기가] 쉽다.
나. [$_{TOP}$ e_β] [$_{NP}$ 영희가 집에 가기가] 쉽다.
다. [$_{TOP}$ 영희$_1$는] [$_{NP}$ e_β] [$_{PP}$ e_1 집에 가기에] 쉽다.

(94가)는 (87가)적인 기저 구조를 (93가)와 관련하여 상정한 것이며(편의상 (87가)의 '영희는'을 '영희가'로 바꾸었다), (94나)는 (93나)와 관련하여 (87나)가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보인 것이고 (여기서도 편의상 (87나)의 '영희는'을 '영희가'로 바꾸었다), (94다)는 (87나)가 '용이성'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를 (93′나)와 관련하여 상정한 것이다. 따라서, (94)에 상정된 공범주-베타는 상황 자체이거나 상황 속에서 문제되는 어떤 因

子를 가리킨다. (94가, 나)에서는 내포문이 주어로 상정되어 있는데, (94다)에서는 내포문이 '에'-구성으로 상정된 것도 특이하다.

(95) 가. 밥이 먹기가 쉽다.
나. 집이 가기가 쉽다.
다. 강으로가 걷기가 쉽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나, (95)와 같은 구성에 있어 문두에 나타나는 '이/가' 성분은 우리에게 있어 아직도 '이/가' 주제임을 밝히고자 한다 (졸고 (1972) 참조).

4.5. '쉽다'의 경우와 유사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게 되다' 구성이다. '-게 되다' 구성에 있어서 '되다'는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보기로 하자.

(96) 가. 영희가 집에 가게 되었다.
나. 영희가 밥을 먹게 되었다.
(97) 가. 상황이 영희가 집에 가게 되었다.
나. 상황이 영희가 밥을 먹게 되었다.
(98) 가. 영희는 상황이 집에 가게 되었다.
나. 영희는 상황이 밥을 먹게 되었다.

(97)은 (96)에 '상황이'와 같은 주어를 상정해 본 것이다. 성립에 아무런 이상이 없거니와, '되다'가 서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백해진다. (98)은 '영희는'을 주제로, '상황이'를 주어로 상정해 본 것이다. (94)에서와 같은 차이는 생겨나지 않는다. '되다'가 '행동 중심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상황'과 '영희'의 순서는 화자의 관심의 순서만을 반영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상황이 주어가 된다는 것은 (97)의 경우나 (98)의 경우에 있어 차이가 없다. 이는 (94가, 나)와 (94다)와의 차이와는 다른 것이다. (96가, 나)에 상황 공범주 주제나 공범주 주어가 상정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참고하기 바란다.

4.6. 보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어 지다' 구성이다. '있다'의 문제와 함께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99) 가. *영희는 밥을 먹어진다.
나. 영희는 밥이 먹어진다.
(100) 가. 영희는 예뻐진다.
나. 철수는 강해진다.

(101) 가. *영희는 공부를 해진다.
나. *영희는 공부가 해진다.
(102) 가. *철수는 성공을 해졌다.
나. *철수는 성공이 해졌다.
(103) 가. *영희는 밥을 먹어 있다.
나. 영희는 밥이 먹어 있다.
(104) 가. 영희는 그 집에 잘 가진다.
나. ?영희는 의도적으로 그 집에 잘 가진다.
(105) 가. ?철수는 웃어 있다.
나. 물가가 뛰어 있다.
다. *운동장이 한 바퀴 뛰어 있다.
라. 바퀴가 한 바퀴 돌아 있다.
마. *영희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있다.

(99가)와 같이 '지다'의 내포문에 '을/를' 목적어가 나타나지 못하는 일, (103가)의 내포문에 '을/를' 목적어가 나타나지 못하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어 지다'를 하나의 동사처럼 다루는 접근법이 보다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25] 그러나, '지다'나 '있다'도 명백히 하나의 서술어인 것이 명백한 이상, 그에 대한 주어의 상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1)의 원리에 의한 것이다. 종래에는 내포문을 가진 경우에 있어서도 그 상위문의 주어를 내포문과 동일하게 상정한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주어를 상황과 관련되는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지다'가 '과정화'와 관련되고,[26] '있다'가 '정태화'와 관련

[25] '-어지다'를 피동사로 다루어 온 것이 일반적인 태도이다. 한재영 (1984)에서는 '-어지다'를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용언의 어간에 직접 연결된 '-어 지다'는 통사론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내포문에 대하여 '지다'가 일으키는 통사적인 변화의 양상이 '-어 있다'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지다'를 형태론적인 구성으로 본다면, '-어 있다'도 같은 논리로 다루어야 한다. 졸고 (1978) 참조. 졸고 (1976)에서는 여기서 다룬 '-어 있다'적인 구성 등의 '-어'를 不定法으로 보고, 주어의 위치에 부정법의 문장이 상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상황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론적인 특성이란 것이 분명하므로, 본고를 통하여 그와 같은 견해를 수정하고자 한다.

[26] '-어 지다'의 '지다'가 과정성을 부여한다고 본 것은 박성종 (1984)이다. 본고에서의 입장도 이와 같은 것이나, '과정화'가 비행동화의 일부가 된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특징이며, '지다'를 형태론적인 구성이 아니라, 통사론적인 구성으로 본다는 것이 박성종 (1984)의 견해와 다른 것이다.

되는 것으로 보고, '과정화'나 '정태화'는 다같이 '비행동화'나 '탈행동화'에 속하는 것으로 상정하기로 한다. 이들을 다같이 '비행동화'로 보는 이유는 어느 예에 있어서나 타동사문이 그 온전한 의미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99가)에서는 '밥을'이 반드시 주어로 나타나야 하며, (103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목적어의 제거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행동주에게서 그 행동성의 의미를 제거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99나)(103나)에서 '밥이'라는 것이 주어의 위치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심층격-역할(θ-role)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다'나 '있다' 구성에 '-어' 보문으로 타동사문이 상정될 때에는 그 주어의 자리가 심층격-역할을 가지지 않는 $\bar{\theta}$-위치로 상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저 구조에서 이 위치에는 공범주가 상정되며, 이 공범주는 다른 공범주와는 달리 그 내용을 가지지 않는다. 하위 범주화 규칙에 의하여 상정된, 내포문의 목적어는 주어의 공범주 위치로 이동하게 되고, 목적어는 그 자신의 심층격-역할을 유지하면서 주격 조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106) '-어 있다, -어 지다' 구성의 비행동화(또는 탈행동화)
가. '-어 있다' 및 '-어 지다' 구성에 내포된 보문은 '있다'나 '지다'의 의미 특성에 의하여 정태화나 과정화의 의미론적인 변화를 입는다.
나. 정태화나 과정화는 비행동화나 탈행동화로 묶일 수 있다.
다. 비행동화는 행동주의 행동성이나 의도성을 제거한다.
라. 비행동화는 보문이 타동사문인 경우, 행동주로서의 주어를 제거하고 주어의 자리에 공범주를 남기고, 목적어는 주어의 자리로 이동된다.

(100)은 '지다'의 과정화 작용으로 설명된다. (101)(102)는 타동사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행동화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예가 있음을 보인다. 특히 '하다'가 본동사로 쓰인 문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하다'가 파생 접사로 쓰인 경우는 이보다 잘 성립한다. (104나)가 성립에 이상을 가지는 것이라면, 보문이 자동사문인 경우에도 비행동화가 행동주의 의도성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104)가 전혀 성립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성립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도,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영희가 의도적으로 그 집에 가지는'것도 상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다'의 주어로 '상황'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103)은 (106라)에 의한 설명을 요구한다. (105)는 '있다'의 내포문에 자동사문이 내포되었을 때의 변화이다. 자동사문에 비행동화가 적용되어 남을 수 있는 것은 그 결과적인 상태이다. (105가)에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한 예이며, (105나)는 그 결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성립할 수 있다. (105다, 마)와 (105라)의 차이도 이것이다. 이는 가령, '그는 학교에 가 있다'가 '그는 학교에 가서 있다'와 구조는 다른데, 왜 그 의미는 酷似한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어 있다'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과 상태에 초점이 놓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문제삼는 접속 구성과의 의미론적인 차이가 그만큼 좁혀지게 된 것이다. 이 때에도 문제의 핵심이 상황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상황 관련 공범주 주어를 '-어 있다, -어 지다' 구성의 '있다, 지다'의 주어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앞서 우리가 상정한 (49)의 '상황 범주 근문 조건'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 '-어 지다' 구성이 다른 문장 속에 내포되어 있을 때 그 성립성이 극히 제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다소 제약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107) 가. 영희가 집에 가 있음을 알았다.
나. ?그는 밥이 먹어 있음을 알았다.
다. ?그는 밥이 먹어 있기를 바란다.

(107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49)가 절대적인 제약이 아니므로, 또한 (107가)가 접속문으로의 해석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아무래도 (107나, 다)는 다소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여겨진다.

(108) 가. ?영희가 그 집에 잘 가짐을 알았다.
나. ?밥이 먹어지기를 바란다.

'지다'의 경우는 보다 제약적이다. (108가, 나)는 이상이 있는 문장이라고 판단된다. 이밖에 '상황'이란 주어를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어 지다, -어 있다' 구성의 상위 주어가 상황과 관련된 어떤 성분이나 범주임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할 것이다. 기타, 종래에 보조 동사나 조동사 구성으로 알려져 온 많은 예들에도 상황 범주의 상정이 가능하다. '-어 버리다, -고 말다, -어 가다, -어 오다' 구성은 그 가능한 후보들이 된다.

특히, '-어 지다'에 대해서는 이를 형태론적인 구성으로만 보려는 해석법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처리는 그러한 접근보다는 설명력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7. 이제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109) 가. 철수는 콩을 팥이라고 한다.
나. 장군은 황금을 돌이라고 여긴다/생각한다/본다.

이들이 내포문 속에 '콩이 팥이다'나 '황금이 돌이다'와 같은 문장이 상정될 수 없음은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남기심 (1973) 참조). 그러나, '팥이라'나 '돌이라'가 서술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돌이라고'가 아니라 '돌로'라고 해도 서술어로 볼 수 있다), (1)의 원리에 의하여 주어의 상정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상정될 수 있는 것은 공범주 주어 외에 달리 없다.

(110) [TOP 철수$_1$는] [NP e_1] 콩$_2$을 [S[NP e_2] 팥이라고] 한다.

이러한 표시나 구조에 의하여 모든 의미 관련이 명백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단 하나의 문제로 남는 것은 왜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만 이러한 특이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다. 왜냐하면, '그는 영희를 집에 간다고 했다'와 같은 예도 '그는 영희를 영희가 집에 간다고 했다'와 같은 문장으로 만들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영희가'는 공범주로 나타나야만 한다. 이를 인상 변형과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이다.

4.8. 다시 다음과 같은 예를 보기로 한다.

(111) 가. 철수는 영희에 대하여 말했다/생각했다/걱정했다/실망했다.
나. 건물이 태풍에 의하여/으로 인하여 파손되었다.
다. 철수는 부산을 향하여 떠났다.
마.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하여, 의하여, 인하여, 향하여, 위하여' 등의 주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 주어를 공범주로 상정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 부분만을 보이기로 한다.

(112) 가. [$\bar{s}$[S[NP e] 영희에 대하-] [COMP 여]
나. [$\bar{s}$[S[NP e] 태풍에 의하-] [COMP 여]
다. [$\bar{s}$[S[NP e] 태풍으로 인하-] [COMP 여]
라. [$\bar{s}$[S[NP e] 부산을 향하여-] [COMP 여]
마. [$\bar{s}$[S[NP e] 그를 위하-] [COMP 여]

이러한 예들에 대하여 주어를 상정하는 것 자체가 의심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하다' 등의 동사가 관형사형 어미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를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선어말 형태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사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대하다' 등이 동사라고 한다면, (1)의 원리에 적용을 받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공범주의 성격을 어떻게 상정할 수 있는가이다.

(111)과 관련하여 (112가)의 공범주를 '말, 생각, 걱정, 실망'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지도 모르고, (112나, 다)의 공범주를 '파손'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112라)의 공범주를 '기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보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의미 해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 2 차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111다)에 있어서는 그 주어가 될 만한 마땅한 명사적인 성분이 근문의 서술어에서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대하다'는 '대상'의 의미를, '의하다/인하다'는 '원인'이나 '이유'의 의미를, '향하다'는 '방향'의 의미를, '위하다'는 '동기/목적'의 의미를 이미 그 자체의 의미 속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Lyons (1977)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포입(encapsulization)'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련을 (112)의 공범주 주어의 자리에 상정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27]

(113) 가. 대상이 영희에 대하여
나. 원인/이유가 태풍에 의하여
다. 원인/이유가 태풍으로 인하여
라. 방향이 부산을 향하여
마. 목적/동기가 그를 위하여

그리고, (113)의 각 예에 대하여 가령 '대상'이나 '원인'이나 '방향'이나 '목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그것은 문맥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대답할 수 있게 된다. (111가)와 같으면, '생각의 대상, 말의 대상, 걱정의 대상, 실망의 대상'이 주어의 내용이 된다고 대답할 수 있고, 나머지 예에 대해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의 흡수 조건 가운데 또 다른 조건을 상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성격은 '비다!'의 예와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114) 서술어의 주어 흡수 조건
서술어에 의하여 주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거나, 서술어가 주어의 의미를 포입하고 있을 때, 국어에서 주어는 의미론적으로

[27] (113)은 다소 부자연스럽다. 그러나, 이는 실제의 문장을 예들어 보인 것이 아니다. 주어가 specific해지면, 그 성립은 보다 나아진다.

서술어에 흡수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에 대하여'가 다른 예들과는 달리 목적어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영어에서와 같이 '대하여 생각하다'가 다시 동사로 재구조화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영희에 대하여 그의 장래를 생각했다'와 같은 예도 있기 때문이다. '대하여'와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의 개입도 가능하고, '영희에 대하여'에서 '영희에'를 목적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 대하여'가 부사어이면서 동사에 대하여 목적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어떠한 구조로 바꿈이 없이 문제를 그것 자체로서 관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에 대하여'는 그 말이 가지는 의미 자체에 의하여 '주제'의 의미에 합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사적인 성분이 명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주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때, 이러한 해석은 그 근거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1가)의 예 하나를 보기로 하자.

(111′) 가. [$_{TOP}$ 철수$_1$는] [$_{NP}$ e_1] [$_{TOP}$ 영희$_\beta$에 대하여] [$_{NP}$ $e_{\beta'}$] 말했다.

편의상 '영희에 대하여'에 대한 (112가)의 구조를 단순화시켰다. '영희에 대하여'가 문장 속에 설정된 주제라는 것이 특이한 것이나, 주제가 한 문장에는 단 하나뿐이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좀더 과장하여 말하면, '-에 대하여'는 그 통사적인 구성상으로는 부사어에 속하는 것이므로 문장 속에 상정됨을 저지할 만한 것이 없다. 따라서, '말하다'의 목적어는 공범주 목적어로 상정되며 그 내용은 주제로 상정된 '영희'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내용을 가진다.

'영희에 대하여'를 문장 밖에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에 대하여' 주제가 목적어 외의 다른 성분과 관련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111″) 가. *영희에 대하여 우리 집에 왔다.
나. 영희는 우리 집에 왔다.

(111″가)는 '-에 대하여' 주제가 공범주 주어와 결속될 수 없음을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에 대하여'가 공범주 목적어와만 결속될 수 있는 예외적인 주제 표지의 하나로 다룰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4.9. 흔히 다음과 같은 예도 무주어문이나, 주어 생략문과 같은 유형의 것으로 취급된다. 먼저 예를 보기로 하자.

(115) 가. 내일이면, 늦으리.

나.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다.
다. 네가 집에 가면 안 된다.
라. 네가 집에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별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맨처음에 전제로 한 '문체적인 공범주'와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한 것이다. (115)가 가령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그것은 우리에게 '문체적인 공범주'로 인식되는 것이며, '통사적인 공범주'의 예는 아니다.

(116) 가. 내일이면, 영희는 학교에 늦으리.
나. 둘에 둘을 더하면, 사람이 넷이다.
다. 네가 집에 가면, 그 일이 안 된다.
라. 네가 집에 가서는, 우리 일이 안 된다.

위의 예에서 문제의 성분이 생략되어(혹은 공범주로 나타나) 근문에서 서술어만 남게 되는 것은 담화 문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문체적인 공범주'인 것으로 전제되었다. 이 경우, (115)의 예는 국어에 있어서 전혀 특이한 것이 되지 못한다. (115)가 특이한 구성이 되는 것은 (115가)에서 '내일이란 것'이 늦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며, (115나)에서 '둘에 둘을 더한 것'이 넷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며, (115다, 라)에서 '네가 집에 가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이다.

(115)에 (1)의 원리에 의하여 공주어를 상정하고, 다시 (6)의 원리에 의하여 근문에 공주제를 상정해 보기로 하자.

(117) 가. [NP e] 내일이면, [TOP e_α] [NP $e_{\alpha'}$] 늦으리.
나. [NP e] 둘에 둘을 더하면, [TOP e_α] [NP $e_{\alpha'}$] 넷이다.
다. [네가 집에 가면], [TOP e_α] [NP $e_{\alpha'}$] 안 된다.
라. [네가 집에 가서는], [TOP e_α] [NP $e_{\alpha'}$] 안 된다.

(117가)의 조건문에 들어 있는 공범주 주어는 '시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추측이 정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내일이다'란 서술어에 포입되어 있는 주어의 성격을 지닌다. 근문의 공범주 주제는, 그것이 문체적인 공범주가 아닌 경우, 상황 공범주가 가능한 자리이다. 그러나, 예에 나타난 상황이란 것은 조건문에 의하여 전제된 상황 외에는 달리 없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에 도달할 수 있다.

(118) 조건문 주제 조건
조건문이 주어지고, 근문의 주제가 공범주로 나타나면서 담화 문맥에 의하여 다른 어떠한 유표적인 주제도 상정되지 않는 경우,

조건문은 곧 주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17가)의 공범주 주제는 조건문의 내용이 된다. 공주제와 공주어는 (18)적인 지표법에 의하여 묶인다. 근문에 있어서의 공주어의 내용도 '시간'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늦는다'가 '시간'의 의미를 포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설명이 가능하며, 주제로부터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된 내용이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내일이면'이 포입하고 있는 것도 '시간'이란 것이므로 그로써 공범주 주어의 내용도 확인될 수 있다.

(117나)의 조건문에서의 공범주 주어는 문체적인 공범주이다. 이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근문의 공범주 주제인데, 위에서와 같이 (118)에 의하여 다른 유표적인 주제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조건문 자체가 주제의 내용이 된다. (117나)의 근문에 있어 공범주 주어의 내용은 조건문 자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8)의 지표법의 효력은 이에서 확인될 수 있다. 명사적인 것이 아니면 주어가 될 수 없다고 할 때, 공지표법에 의하면, 주어도 조건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나, (18)적인 지표법에 의하면 이러한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주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18)적인 지표법에 의하여 조건문 주제로부터 귀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7다, 라)에 의한 설명법도 (117나)에 대한 설명법과 다를 것이 없다. 공범주 주어의 내용은 '결과'로 해석되기 어렵고, '네가 집에 가는 일'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특징이다.

5. 결 론

이제까지 우리는 '국어에 있어 모든 서술어는 반드시 주어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1)의 '주어 전제 조건'과 '적어도 국어의 근문은 주제를 가진다'고 하는 (6)의 '근문 주제 조건'에 의하여 공범주 주제나 공범주 주어를 상정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공범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통사적인 공범주'와 '문체적인 공범주'를 구별하였다. '문체적인 공범주'는 선행 담화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화자의 의도에 의하여 공범주나 대명사 또는 지시-표현이 나타날 수도 있는 위치에 나타나는 공범주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자의성을 가지지 않는(적어도 제약되는) '통사적인 공범주'와를 구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논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문체적인 공범주가 나타날 경우의 해석법이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한 해석법과 원리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 우선은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하였다.

이제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국어에 나타나는 통사적인 공범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내용을 가지지 않는 공범주이며, 다른 하나는 내

용을 가지는 공범주로서, 우리가 다룬 대부분의 예는 내용을 가지는 공범주에 속하는 것이었다. 내용을 가지지 않는 공범주는 '-어 지다, -어 있다' 구성의 내포문의 주어에 나타나는 공범주가 그 하나이며, 피동문의 기저 구조의 주어의 자리에 나타나는 공범주가 다른 하나이다. 국어에 있어서 명사구-이동이 상정된 것은 이러한 구조에서이며, 그 이동의 흔적은 대용사적(Anaphoric)인 특징을 가지고 지배 범주 속에서 그 선행사와 결속된다.

그 외에 우리가 다룬 공범주로서, 단위 문장 속에서 그 선행사나 결속자를 찾을 수 있는 예는 극히 적다. 여기서 '단위 문장'이라 함은 '주제'를 제외하고, 주어를 포함하는, 서술어의 논항만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의 범위를 뜻한다. 우리가 상정하는 구조에 있어서 주제의 위치는 비-논항 위치일 뿐만 아니라 심층격-역할을 가지지 않는 위치이다. 따라서, 단위 문장을 공범주에 대한 지배 범주라고 할 경우, 국어에 있어서 명사구-이동의 흔적을 제외한 통사적인 공범주는 변항(variable)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국어에는 영어의 부정사 구성의 주어 자리와 같이 지배를 받지 않는 위치는 없으므로, 만약 '큰 공대명사(PRO)'가 지배를 받지 않는 위치에만 나타나는 것이라면, 국어에 큰 공대명사의 존재는 상정되지 않는다. 만약, 큰 공대명사가 지배를 받는 위치에도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은 정의의 문제이지 언어의 실제의 문제는 아니다.

단위 문장 속의 통사적인 공범주가 변항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때, 주제의 위치는 Chomsky (1981)적인 의미에 있어 Operator(연산자)의 위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어에 있어 Chomsky (1982)에서와 같은 '연산자의 이동'을 상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위 인접 조건을 위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깊이 내포된 문장 속의 어떤 성분과 관련되는 주제의 상정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위 문장에 대하여 어떤 추상적인 위치를 상정하고, 연산자를 그리로 이동시키고 그 이동의 흔적이 연산자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추상을 위한 추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문제의 하나는 단위 문장 밖에 상정되는 주제의 위치에 있어서도 제1차적인 주제와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관련되는 제2차적인 공범주 주제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논항 위치에서 비-논항 결속되는 다른 변항의 성격과는 구별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문제는 가령 '나는 [e] 음악이 좋다'와 같은 예에 나타나는 공범주 주제를 변항이라고 해 보아야 별다른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그 공범주는 어떤 어휘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상정된 주제에 대하여 공범주 주어가 상정될 때에도, 그 주어의 내용이 단순히 동지표

와 같은 것에 의하여 특징지어지지 않는 주어가 국어에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그 경우 변항의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공범주의 유형 가운데 어휘적인 내용을 가지는 공범주를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범주의 성격은 이제까지의 공범주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포착할 수 있는 원리는 '공범주 원리'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보는 것이다. 우리는 '국어의 공범주 원리'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119) 국어의 공범주 원리
국어의 공범주는 그 내용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Jaeggli (1982)적인 공범주 원리와 매우 흡사한 모습을 띠고 있으나,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어에서는 '하위 범주-지배(s-government)'에 의하여 주어를 나머지 논항과 구별해 보아야, '엄정-지배(proper government)'와 '비엄정-지배'로 문법 현상이 효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룬 예를 중심으로 하여 볼 때,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20) 가. 상황 자체에 의하여 주어지는 상황 공범주.
나. 서술어의 성격에 의하여 그 주어의 내용이 확인 내지 암시될 수 있는 예의 공범주 주어. 이 때의 서술어는 주어 흡수 서술어를 말한다.
다. 선행사 또는 결속자로부터 그 성격이 의미론적으로나 화용론적으로 유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의 공범주.
라. 선행사나 결속자에 의하여 성분-지휘(c-command)되는 공범주.

이러한 확인 방법이 서로 독립되어 별개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국어의 특징이다. (120가)가 (120다)의 입력이 되어 어떤 공범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20다)에서 (120나)를 거쳐 (120가)의 성격에 대하여 그 내용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120다)도 (120라)와 같이 성분-지휘되는 점은 같으나, (120라)는 동지표(coindex)의 관계를 말한 것이며, (120다)는 공범주가 공지시의 관계를 가진다기보다는 어휘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잉여성을 (120)의 결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언어의 의미 현상에는

얼마만큼의 잉여성이 개재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국어는 PRO-drop language(큰 공대명사 탈락 언어)인가 하는 물음이다. Huang (1984: 557)에서는 활용이 풍부한 언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내용이 풍부한 잠재적인 선행사'에 의해서도 '작은 공대명사 탈락'은 가능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하여도 우리의 (120)이 말해 주는 의의는 다르다. 또한, 국어에 '작은 공대명사'나 '큰 공대명사'를 상정하고 그것이 '탈락' 해야 한다고 상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도 찾아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121) 국어의 상황 공범주 조건
국어에서는 그 서술어가 주어나 주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일 때 상황 공범주의 출현이 가능하다.

이는 국어가 Huang (1984)적인 의미에 있어서 '담화 중심적인 언어'일 뿐만 아니라, '화용 중심적인 언어(pragmatically-oriented language)'임을 말하는 것이며, 그런 한에 있어 (121)적인 특징은 국어가 '큰 공대명사 탈락 언어'인가 아닌가 하는 언어 유형론보다는 주제 부각형 언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을 말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공대명사 탈락'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하여 국어를 이태리어와 같은 유형으로 묶는 것은 전혀 온당한 처사가 아니다.

우리의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다시 분명해지는 것은 상황 범주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은 단지 주제나 주어의 위치에 있어서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Huang (1984)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어에 있어서의 '주어-목적어 비대칭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국어에 있어서도 '동사구' 교점은 설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동사구-교점은 국어의 문법 현상의 설명에 있어 아직도 가치를 가지는 범주의 하나이다.

우리는 문체적인 공범주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선행 담화와 관련된 요소를 공주제로 상정하거나, 또는 화자의 意中에 있는 대상을 공주제로 상정하면, 문체적인 공범주도 우리의 설명 방식에 의한 해명이 가능하다. 그것은 (120라)에 포괄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러한 전제는 이제까지 우리가 다루어 온 예들이 보여 주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 문장에 주제는 하나만 상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문장에 주제는 많아야 하나뿐이라는 전제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참 고 문 헌

국응도 (1968) *Embedding Transformation in Korean Syntax*, The U. of Alberta. Ph. D. diss.

김광해 (1983) '국어의 계사문,' 난대 이응백 박사 회갑기념논총.

김영희 (1980) '평가 구문의 통사론적 연구,' 한국학논집 7, 계명대.

김홍수 (1980) '심리 동사 구문의 해석,' 한국언어문학 21.

남기심 (1973) 국어의 완형 보문법 연구, 계명대 출판부.

남기심·고영근 (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박성종 (1984) 국어 피동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양규 (1980) '주어의 생략에 대하여,' 국어학 9.

박병수 (1974) '한국어와 명사 보문 구조 분석,' 문법연구 1.

손호민 (1980) 'Theme-prominence in Korean,' *Korean Linguistics* 2.

송석중 (1985) 'It's Tough to Interprete the Word 'Easy' *Swipta*,' 언어 10.1.

안명철 (1983) 현대 국어의 양상 연구, 국어연구 56.

양동휘 (1979) 'Zero Anaphora in Korean,' 언어 4.2.

_____ (1982) 'Control and Binding in Korean,' 언어 7.2.

양인석 (1972) *Korean Syntax*, 백합출판사.

이남순 (1985) '주격 중출문의 통사 구조,' 국어국문학 93.

이승욱 (1969) '주어의 통사에 관한 고찰,' 국문학논집 3, 단국대, 남기심 외 편 (1975) 현대국어문법, 재록.

이익섭 (1978) '피동성 형용사 구문의 통사 구조,' 국어학 6.

이정민 (1976) 'Cases for Psychological Verbs in Korean,' 언어 1.1.

이홍배 (1970) *A Study of Korean Syntax*, 범한서적.

임영재 (1984) *Case Tropism*, U. of Washington, Ph. D. diss.

임홍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_____ (1974가)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_____ (1974나) '명사화의 의미 특성에 대하여,' 국어학 2.

_____ (1976) '부정법 '-어'와 상태 진술의 '-고'에 대하여,' 논문집 8, 국민대.

_____ (1978) '피동성과 피동 구문,' 논문집 12, 국민대.

_____ (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말 9, 연세대.

_____ (1985) '국어의 문법적 특징,' 국어생활 2, 국어연구소.

차현실 (1984) ''싶다'의 의미와 통사 구조,' 언어 9.2.

한재영 (1984) '중세국어 피동 구문의 특성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61.

Bach, E. & R. Harms eds. (1968) *Universals in Linguistics*, NY.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Cambridge.

_____ (1985)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s and Use*, MIT, ms.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 Harms, eds. (1968).

Huang, C.-T. J.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 *Linguistic Inquiry* 15. 4.

Jaeggli, O. (1982) *Topics in Romance Syntax*, Foris Publications.

Li. C.N. and S.A. Thompson (1976) 'Subject and Topic,' in Li, ed. (1976).

Li, C.N. ed. (1976) *Subject and Topic*, AP.

Lyons, J. (1977) *Semantics*, CUP.

Rothstein, S. (1985) *The Syntactic Forms of Predication*, IULC.

Saito, M. (1982) 'Case Marking in Japanese,' MIT, ms.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ABSTRACT

On 'Syntactic' Empty Categories in Korean

Hong-pin Im

This paper assumes that Korean has two types of empty category (=EC); one is of 'syntactic' EC, and the other of 'stylistic' EC. The content of the former category is syntactically determined by its antecedent or the predicate, and that of the latter is stylistically defined by the preceding context. This distinction is not crucial, but serves to restrict the scope of our discussion.

According to the LF interpretation in the spirit of Huang (1984) which postulates a zero topic (or operator) binding EC in discourse-related deficient sentences, these two types of EC could be qualified as of the same nature. This means that Huang's solution can be extended to cover the instances

of 'intentional' EC that occurs in relation to the speaker's presupposition at the moment of utterance. However, the two types of EC reveals subtle differences. First, while the syntactic EC is exclusively related to the subject of a sentence in question, the stylistic EC has no such constraint, that is, any category may be empty. Second, while the content of the stylistic EC is determined by simple indexing, that of the syntactic EC may be more than indexing, that is, it may have the content semantically or pragmatically derived from its antecedent. The former property of syntactic EC attests the Subject-Object Asymmetry in Korean syntax. This, in turn, gives some indication on the configurationality of clausal structure in Korean.

The point is how to ascertain the presence and the content of the syntactic EC. The minimum requirement sufficient for this operation is the condition that every predicate should have a subject. By thorough application of this minimum requirement, we set up a large number of EC previously unnoticed. One of them which deserves much attention is the so-called 'Subjectless Sentence.' By all evidences, it is beyond any controversy that there should be posited a subject even in those interjection-like sentences. The fact that they are copulative sentences and that they have close connection with utterance situations may be a decisive factor to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of 'Subjectless Sentences.' The logical equivalence between suject and object is responsible for the Subject Dropping, and the immediacy of utterance situation makes the situation itself take the role of subject in the 'Subjectless Sentences.' This means that the subject of situation-dependent sentences can be identified by its predicate semantically on the one hand, and by its situation pragmatically on the other hand.

This has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on the typology of the Korean language and on the content of EC. First, although it is conceded Korean has some properties analogous to the *pro*-drop language like Italian, it is trivial or absurd to draw a conclusion that Korean is a sort of *pro*-drop language, since the peculiarities of Korean syntax can be effectively explained on the basis of the facts derived from the topic prominence in the sense of Li and Thompson (1976). In this respect, Huang's position is dubious at best that an antecedent rich in content can drop the *pro* subject, just as in the language rich in inflection. Second,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re exists a certain kind of EC whose content is to be determined semantically

or pragmatically from the antecedent and/or from the situation. Until now the prevailing concern on EC in the literature except the feature analysis has been confined to the problem whether an EC can be construed with its antecedent or not.

151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접수: 1985. 11. 12.)